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F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3 1983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49~1150 1983년 6월3일(금) & 4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June 3 & 4,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2개 전철노선이 생긴다

토론토시 급행노선 건설 정기계획발표

토론토시는 1일 총7억5천만달러가 투입될 새로운 급행노선(Rapid-Transit) 장기건설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울·갓프리시의회장과 아트 이글턴시장은 이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20년 이래 시정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될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앞으로 10여년동안 1만명이상의 고정건설노무자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의 골자를 보면 앞으로 15년간 (1) 시내중심지역 남쪽에 연한 해안선설치와 (2) 현존 가디너·익스프레스웨이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3) 스트라챈 에비뉴(Strachan Ave.)에 인터첸지를 건설해 푸론트스트릿과 연결, (4) 2개의 새로운 전철선인 워터프론트선(Waterfront Line)과 하버프론트(Harborfront) 스트릿카선을 신설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워터프론트선은 유니온스테이션을 기점으로 후론트스트릿과 병행하여 가디너·익스프레스 아래를 지나 올드·포드욕과 스트라챈 에비뉴를 경유, CNE플레이스의 북쪽에 이르는 신규노선이다.

이 선이 설치되면 현존 댄포스·블루어 지하철이 직접 서쪽으로 연결된다.

또한 하버프론트 스트릿카선은 역시 유니온스테이션을 기점으로 베이스트릿(Bay St.)남쪽을 통과, 퀸스키이(Queens Quay)를 따라 스파다이너 에비뉴(Spadina Ave.)로 북상, 블루어·댄포스 지하철과 만나게 되어 있다.

그외에도 (1) 더퍼린 스트릿 남쪽과 레이크쇼 불루바드와 연결되는 연장공사

(2) 배이뷰스트릿 확장과 푸론트와의 연결,

(3) 욕 스트릿, 베서스트 스트릿 확장과 프론트와의 연결

(4) 돈벨리 파크웨이 이글링턴 남쪽차선확장 등이 포함된다.

이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디너·엑스프레스 확장및 인터첸지공사 : 3천5백만달러.

▲프론트 스트릿과 스트래챈 에비뉴를 통해 가디너·엑스프레스에 연결되는 공사 : 5천5백만달러.

▲유니온 스테이션과 CNE에 이르는 워터프론트선 : 1억8천7백만달러.

▲하버프론트선 건설 : 2천9백만달러.

▲부대시설, 교량, 철도공사 : 2억달러등이다.

이 계획안은 메트로시의회의 최종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 가을내로 통과되면 1984년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갓프리시의회의장이 말했다.

평균소득 72달러 올라

76년부터 5년간 캐나다 가정

(오타와) 76년부터 81년까지 5년간 캐나다인 가정의 평균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72달러가 올랐다고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밝혔다.

1일 발표된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또 지난 71년부터 81년까지의 10년간 가정의 평균소득은 거의 24%올랐으며 그중 23%는 71년부터 75년 사이에 오른 것이며 76년이후에는 겨우 1%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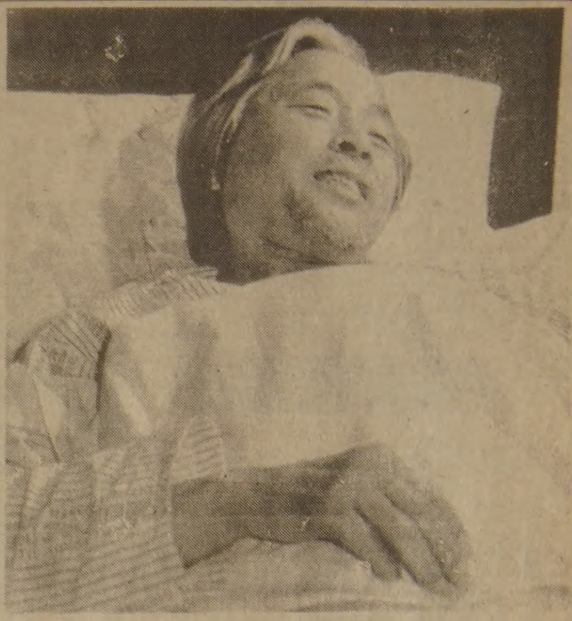
수입의 60%이상을 식비, 주거비, 의복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의 인구는 전체의 14.7%인 350만명인 것으로 기록됐다.

통계국은 또 81년 1년간 캐나다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30,440달러로 80년보다 10% 늘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득은 1년전보다 2% 줄은 셈이라고 말했다.

주별로 보면 알버타주의 가정소득이 연 34,546달러로 가장 높았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가 23,163달러로 가장 낮았다.

가장이 대학졸업자인 가정의 51%가 연소득 4만달러가 넘은데 비해 8학년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장 가정의 경우 연봉 4만달러이상인 가정은 13.8%였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해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단식 14일째 — 한국의 민주회복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중인 김영삼 전신민당총재가 30일 정부의 자택연금해제 조치후 서울대학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고있다. (서울-UPI)

金泳三씨 자택연금 해제 海外여행 허용

김씨는 거부…함석헌옹등 5명 인사도 동조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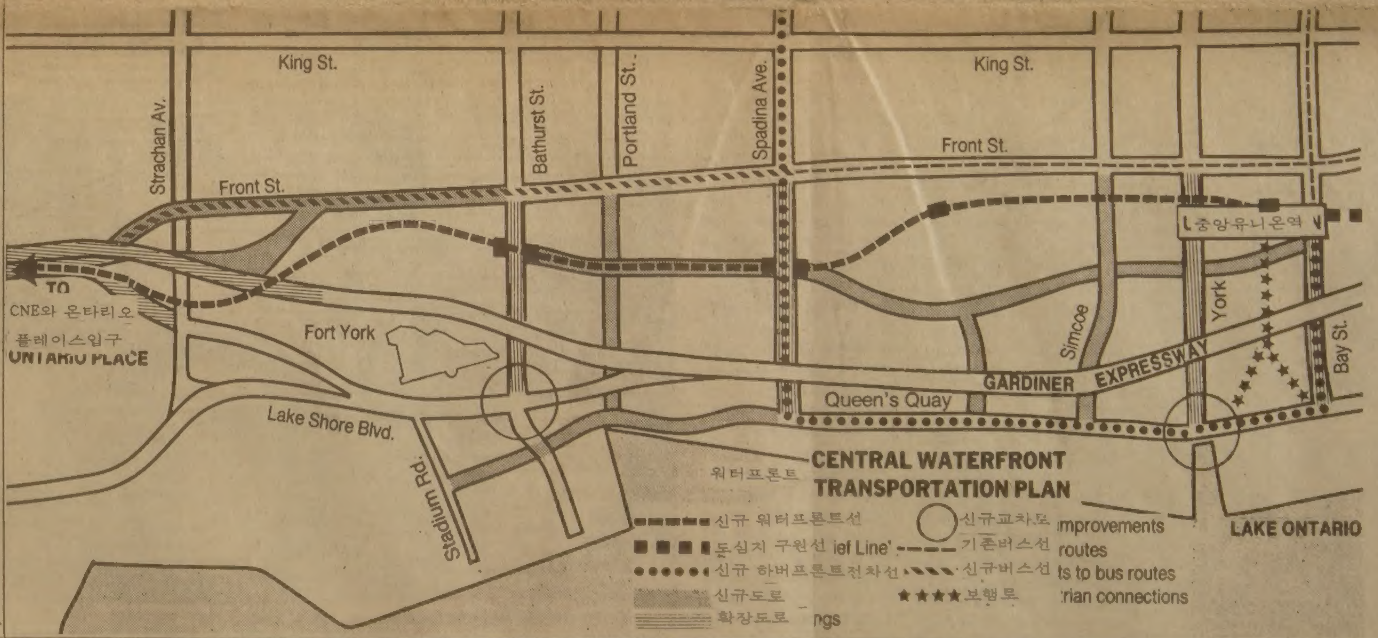
(서울-UPI) 한국정부는 30일 단식투쟁을 벌이고있는 김영삼전신민당총재에게 29일 지성을 기해 자택연금상태를 해제하고, 국외여행을 허용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채 단식투쟁 14일째를 맞고있다.

또한 함석헌(82)옹을 비롯 이문영(56) 전고대 법대교수, 예춘호(59)전 국회의원, 문익환목사, 홍남순(65)변호사등 5명이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삼씨 지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들5명은 성명서에서 『현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리를 억압하고있다』고 비난하고 『정치범의 석방, 면직및 제적된 교수, 언론인, 학생과 정치활동규제자들의 복직및 복권』을 요구했다.

김영삼씨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민주화요구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대학에서는 학원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반정부시위가 일어나 한소식통은 3백-4백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갔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에서 식사와 의사진료를 거부한채 단식투쟁중인 김영삼씨는 그동안 체중이 11kg가량 줄었으며, 해외여행을 허용한 정부조치에 대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는 현상황하에서 해외여행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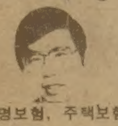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추진 사실무근”

전대통령 평통위원에 밝혀

(서울2일=연합) 전두환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북한공산불순분자에 의해 만연되는 것이라고 1일 말했다.

청와대를 예방한 평화통일정책자문 대표를 위한 리셉션에서 이같이 밝힌 전대통령은 북괴는 호시탐남 남침할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괴는 남한이 주도하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금년 10월 서울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총회등의 국제규모행사 유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각종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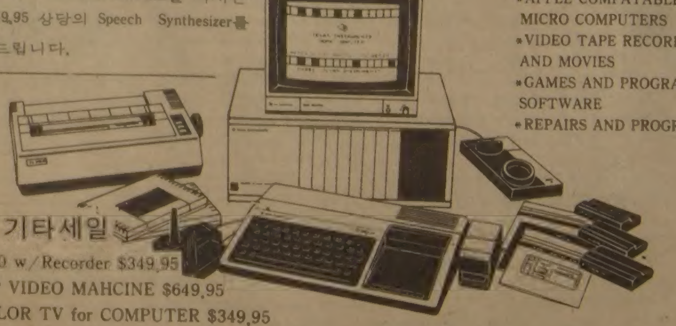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3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현 영 일
공인회계사무소
444 9341
YOUNG I. HYUN, C.A.
Chartered Accountant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개업특별세일
TI 홈콤퓨터 $299.00
WITH FREE TAPE RECORDER (판매가 $99.95)AND
PROGRAM TAPE(판매가 $44.95)
또한 6개의 GAME SOFTWARE를 사시는 분은 $149.95 상당의 Speech Synthesizer를 무료로 드립니다.
-취급품목-
•TEXAS INSTRUMENTS TI-99/4A HOME COMPUTER
•VIC-20, COMMODORE64
•APPLE COMPATABLE MICRO COMPUTERS
•VIDEO TAPE RECORDERS AND MOVIES
•GAMES AND PROGRAM SOFTWARE
•REPAIRS AND PROGRAMMING SERVICE

6월중 기타세일
◉VIC-20 w/Recorder $349.95
◉SHARP VIDEO MAHCINE $649.95
◉14"COLOR TV for COMPUTER $349.95
BITS & BYTES ELECTRONICS
3369 BLOOR ST. WEST at ISLINGTON ☎239-6216 Rep. 이영호. 안경용

"한국과 일본의 근접성"토론회

캐나다 동양학회 주최

캐나다 동양학회(Canadian Asian Studie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한국에 관한 토론이 오는 6월4일부터 6일까지 뱅쿠버의 브리티쉬·콜럼비아대학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 : 얼마나 가까운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의 발표자는 토론토대학의 유재신, 백응진, 다가시라·요시코교수, 사이몬·프레이저 대학의 김태환교수 등이며 사회는 토론토대학 동아시아학부부장인 귀소교수가 맡는다.

이 토론에서 백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존칭어", 김교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사성", 다가시라교수는 "한국과 일본인의 주관성", 유교수는 "원효와 스즈끼의 불교사상비교"에 관해 강연한다.

캐나다아시아학회는 작년에 오타와대학에서 연례학술회의를 주관하고 "한국의 사상과 가치관"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런던한글학교 운동회

현지신문에 상세히 보도

(런던=강상권지국장) 주말학교인 런던한글학교(교장 홍석재) 어린이들은 지난달 28일 교실에서의 수업을 중단하고 기본스공원에서 제5회 운동회겸 가족피크닉을 가졌다.

이날의 운동회에서 50여명의 어린이들은 각가지 게임에 참석했으며 북미특산물이기도한 핫도그와 팝을 즐겼다.

온타리오 문교부에서 지급하는 모국어교육 지원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런던한글학교는 한국 이민자녀들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이다.

런던한글학교 하용이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자칫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쉽다"면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한국말을 배우지만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항상 영어를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런던교육청 건물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한글학교는 런던한인회(회장 강상권)에서 교사등을 제공하는등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런던한인사회에는 170가구에 8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런던의 한인 카토릭 콤뮤니티에서도 별도의 한글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월30일자 런던·프리·프레스—London Free Press—에서 전재)

◆런던 프리프레스가 2단 기사로 다룬 런던한글학교 운동회광경. 프리프레스는 이 사진과 함께 한글학교 소식을 싣고 한인커뮤니티를 소개했다.

한강국씨 우승

영남향우회주최 골프대회

지난달 21일 리치몬드힐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영남향우회(회장 : 장필규) 주최 제2회 한인친선골프대회에서 한강국씨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60여명의 선수가 참가, 15개조로 편성되어 게임을 한 이날 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로스참피온 : 한강국

2등 : 차선행

3등 : 이호영

▲A조우승 : 박영철

▲B조우승 : 김광석

▲C조우승 : 김종호

롱게스드 드라이브 : 박영철

니어리스트 홀 : 이상철

모스트 어네스트 : 장필규

교민동정

▲정용필=「용·그래픽스」회사를 설립한 정사장은 4일(토) 하오2~6시 개업리셉션을 갖는다. 많은 교포분들이 오셔서 시설을 돌아보고 또 취급품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기를 요망한다고 정사장은 말했다. 정사장은 이민후 10년간 같은 분야의 캐네디안회사에서 근무, 부사장으로 있었다. 주소 1181 Finch W. (Keele 동쪽) 12호실, 전화 : 661-2838이다.

◆신용목(제일여행사 근무)=신씨는 장남 훈용군을 장가보내는 기쁨에 차있다. 훈용군은 토론토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6월부터 닥터스·하스피틀(종합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는 의학도. 며느리될 문안나양은 문언기씨 차녀로 그래픽·아티스트.

◆신복균(물리학박사·육대학)=장남인 준군이 최근 브레브스고등학교(Brebus College School)의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동안 부회장을 지내온 준군은 동료친구들과 같이 여러달동안 조직적이고 치밀한 선거운동을 해온 결과, 9학년부터 13학년까지 전교생이 투표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수로 당선됐으며, 금년여름 온타리오 정부에서 주관하는 학생지도자캠프(Student Leadership Camp)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준군은 지금까지 동고등학교의 신입생준 최우수학생에게 주는 네드·해링턴상을 받는 이외에, 웅변대회등 각종 상을 다수 수상했었다.

아직도 중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박군

지난 5월30일밤 하이웨이 401과 레슬리·스트릿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부상한 교민 폴·박(8)군은 2일현재까지 중태에 빠져있다.

브로드뷰·애비뉴 675번지에서 버라이어티 스토어를 경영하는 박명달씨의 부인과 두아들 마이클, 폴등 일가족 4명은 지난 30일밤 귀가도중 하이웨이 401에서 일어난 연쇄충돌 사고로 부상, 폴군은 중상을 입고 아동병원(Sick Children's Hospital)에 입원, 1일 뇌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가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2일낮 박씨의 상점을 돕고있다는 폴군의 친척은 "폴이 배등 여러군데를 다쳤으며 차에 갇혀있는 동안 뇌에 산소공급이 안돼 피가 돌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다른 가족은 모두 퇴원했다고 전했다.

Y여름학교 개강

7월4일부터 2주간씩

Y 여름학교 데이캠프(Day Camp)가 오는 7월4일부터 시작된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Y 여름학교의 프로그램은 한글, 노래, 수영, 체육및 예능등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등록비는 스쿨버스 비용포함 2주간 135달러이다.

Y 여름학교는 부모가 직장에 나가는 어린이를 위해 데이·케어시설도 구비했으며 매주 금요일은 야외수업으로 센트럴·아일랜드, 온타리오·플레이스, 원더랜드등을 견학한다.

수업기간은 1회가 7월4일부터 15일까지, 2회가 7월18일부터 29일까지, 3회가 8월1일부터 12일까지, 4회가 8월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데이케어는 2주간 $25. 등록은 매회개강 14일전까지 끝내야 한다.

연락처는 전화 : 536-1166.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의 사나이

<246>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언제나 인질로잡고 있어야해. 여자를 잡고있는한 놈은 힘을 못쓸거란 말이야.』

『놈이 어떤식으로 나타날지 정말 궁금한데요.』

『나타날것 같지 않은데요.』

그들은 제각기 한마디씩했다. 남작코는 주먹으로 탁자를두드렸다.

『바보같은 소리하지마! 편리한대로 생각하지 마. 그놈은 달라. 긴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이죽어.』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놈은 무자비한 놈이야. 우리도 그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놈은 더한놈이야. 놈은 킬러야. 전문가란말이야. 놈은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자고 한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서 만나자고 했겠어?』

『여기서 어떻게 물건을 확인하죠?』

『여기서 만나서 밖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화장실로 가든가 해야지. 놈이 만일 물건을 가져오지않았으면 놈을 일단 붙잡아. 그리고 죽지 않을 정도로 고문하면 제깐놈이 제아무리 독종이라해도 불겠지.』

누가 悪魔인가 ⑦

홍콩서 온 미모의 여인이 김포공항에…

두시간 후 그들은 나이트클럽을 떠났다. 그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못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수사요원들에 의해 낱낱이 포착되고 있었다. 그들이 한밤중에 호텔 나이트클럽에 집결했다는것은 센터에 심상치않은 일로 받아들여졌다. 거기서 무슨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아뭏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려하고 있는것만은 분명한것 같았다.

2월9일 오후9시 조금 지나 김포공항에 미모의 여자가 한 사람 내렸다. CPA기로 홍콩에서 오는 길이었다. 4명의 사나이들이 그녀를 감싸듯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쪽에서 마중나간 사나이를 미행했던 수사요원들의 눈에 5명의 남녀가 비쳐들었다. 그들은 H호텔로 안내되었다. 수사요원들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다.

朴 男 그림

문제의 화교들이 뻔질나게 H호텔을 출입하기 시작했다. H호텔에 배치된 수사요원들의 숫자도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화교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놓고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조사결과 홍콩에서 온 5명의 남녀는 모두 화교들이었읍니다. 그들은 지금 H호텔 14층1호실에 들어가있읍니다. 1호실에서 3호실까지는 모두 화교들이 얻어놓고 있읍니다. 우리가 감시해온 사나이들이 수시로 그곳을 드나들고 있읍니다. 그들은 H호텔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호텔 전화에 도청장치를 해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녹음을해. 놈들이 무슨 수작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한단말이야. 거기서 노름이라도 한다면 이건 웃기는 일 아닌가 말이야. 여자 이름은 뭐지?』

『중국식 발음으로 샤옐이라고합니다.』

『샤는 성이고 이름은 옐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여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 옆에 방을얻어감시해.』

『그렇지 않아도 두개를 얻었읍니다.』

마인은호텔전화도청팀에가담했다. 모든 전화가 교환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도청하기가아주 쉬웠다.

강신봉씨 김치공장 설립

"교포가정에 김치배달"

김치를 대량생산, 염가공급하기 위한 김치공장이 지난달 28일부터 토론토 북방 뉴마켓(New Market, #RR2)에서 문을 열었다.

토론토한인회장을 지냈고 현재 한인총연합회 이사장인 강신봉씨(43)가 설립한 김치·캐나다 주식회사(Kimchi Cananda Ltd.)는 금년말까지 약40만파운드(약200톤)의 배추김치, 물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짱아찌등 약 20종의 채소반찬류를 캐나다및 미국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현시설은 시멘트로 만든 2톤들이 저립탱크 7개, 독 대신 쓸 각종 크기의 프라스틱·콘테이너 정도지만 캐네디안 4명, 교포 7명이 고용됐다.

김치의 맛을 책임진 최고기술자는 임실연(62)씨, 기술자 모집광고에 8명이 응모하자 강사장은 김치, 깍두기등 5종목의 재료를 주고 즉석에서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이런 실기테스트 결과 김치만 30년 경력이 있는 임여사가 선택됐다.

매니저는 건국대 농대 대학원 출신인 홍동표씨. 홍씨는 채소분야 전문가이다.

"회사설립을 지원해준 연방정부가 기계설치보다도 사람을 더 써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가급적 사람손으로 작업할 작정"이라고 강사장은 말했다.

같은 장소에 봉화농장을 가진 강씨는 "캐나다가 진짜 복합문화정책을 쓰려면 각민족의 고유음식에 먼저 신경써야 한다"는데 착안, 맨파워(인력성)등 정부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금년봄 무상원조요청서를 접수한 연방정부는 온타리오주 상공부와 협의 "복합문화 발전뿐 아니라 고용증대, 수입억제, 수출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공장건설을 지원했다.

연방정부가 한국인의 공장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아시아계의 음식물공장설립을 도운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사장은 말했다. 공장은 농장포함, 총40만달러 프로젝트이다.

강사장은 이태리인들의 피자처럼 「김치의 캐네디아나이즈(캐나다의 속성이 되는것)」가 목적이라면서 캐나다 사전에 「김치」라는 단어가 추가될 날이 멀지 않다고 기염을 토했다.

강사장은 로이트·액쉬디 연방이민장관, 밥·웰치 온타리오주 노동장관의 친필서명의 축하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치·캐나다회사는 김치류를 모든 식품점에 공급하고 한국같이 회원가정에 2주마다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구상중이다.

"한국서도 점차로 공장서 대량생산된 김치를 먹는데 바쁜 생활을 하는 이곳서 왜 김치를 손수 담그느라고 시간을 뺏깁니까?"

강사장은 일년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적시에 교포들의 김치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교포들은 김치를 집에서 담그거나 소매식품점이 소규모로 만든 김치를 사먹고 있다.

◆연방정부지원으로 캐나다 최초의 대단위 김치공장을 설립한 강신봉씨.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제7회교민친선골프대회

(시간표)

1	12:00	박승락	정 용	이기훈	정길수
2	12:07	이상훈	최승락	장순채	김태진
3	12:14	이춘식	이수신	최동호	정정홍
4	12:21	윤여경	차선겸	함태호	곽창수
5	12:28	김창갑	최호영	강태영	고광남
6	12:35	김영대	차인규	김 효	이무교
7	12:42	박상남	김덕수	김진기	이호영
8	12:49	김진호	김홍량	김형도	김영욱
9	12:56	박경덕	이동환	송종보	조용칠
10	1:03	이상철	강경화	하청남	김기수
11	1:10	박기복	김인규	김정태	송인문
12	1:17	김만구	배경락	박주삼	홍진표
13	1:24	최상철	이학현	문옥섭	김영상
14	1:31	함태민	정인필	조용덕	김한룡
15	1:38	한천석	김은하	양해룡	김성운
16	1:45	김연오	정연대	이영복	고성호
17	1:52	송종관	송종순	김세영	이기천
18	1:59	박태식	김남헌	송종남	함효상
19	2:06	박영철	한강국	차선행	박노욱
20	2:13	진경호	김경호	최응범	박광철
21	2:20	이상철	노도윤	고종욱	김종욱
22	2:27	김여열	김종호	임정재	김문교
23	2:34	손경헌	정형택	김상헌	송대헌
24	2:41	김진환	한용식	김성은	김근철
25	2:48	신용목	임종남	이제민	김용기

•진행위원 : 홍진표·김용기·김홍량·심재환
•심사위원 : 정정홍·고광남·함태호·곽창수

〈시합규정〉

(1)Winter Rule.
O.B. 가난 지점에서 칠 경우만 Panalty 2점을 가산하고, 이하는 Panalty 1점을 가산함.
(2)Rough에서 공을 움직였을때, Lost Ball, Tee Off를 다시할 때, 공이 물에 빠져 칠수 없을때.
(3)Gross Champion이 동점일 경우, 1st Hole에서 부터 Sudden Death로 결정함.
(4)Gross Winner 동점일 경우, Eagle, Birdie, Par순으로 결정함.
Net Winner 동점일 경우, High Handcap 순으로 결정함.
(5)시합도중 의문점이 있으면 계속 끝내고 심사위원께 상의하여 결정하십시요.
Longest 1st Hole Nearest 15th Hole Hole in One 9th Hole.

주최 :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

후원 : 한국일보사, 토론토한인골프협회

카나다한인테니스협회

남녀종별선수권대회

□일 시 : 1983년 7월9·10(토·일)~우천시 7월30·31(토·일)
□장 소 : L'Amoreaux Tennis Centre—L'Amoreaux Park
(North West of Finch & Kennedy)
□경기종목 : 남녀단식 : UNDER 12 UNDER 18
UNDER 14 UNDER 35
UNDER 16 35 & OVER
남녀복식 : 연령제한 없음.
□경기방식 : Championship Round : Best 2 Out of 3 Sets
(Consolidation) Round for the First Round Losers : 1Pro Set
□참 가 비 : 단식 15불, 복식 10불(참가 신청시)
□신청마감 : 6월25일 오후6시
(단, 서면 신청에 한하여 마감 기한후 신청은 접수치 않음.
□신청서 배부및 접수처 : BRANDON SPORTS 전화 : 598-3732
○비고 : 1. 경기종목및 방식은 참가선수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진표는 6월28일 오후7시30분 브랜든운동구점에서 공개추첨 작성함.

주최 : 캐나다 한인 테니스 협회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캐네시안 창립총회

아시아계 예술가들의 모임…한국계회원 환영

아시아인의 배경을 갖고 캐나다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종사자들의 모임인 〈캐네시안〉이 6월1일 총회를 가졌다.

현재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미술, 사진, 의상, 언론등 각 문화·예술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시아인의 후예 60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캐네시안(Canasian Artists Group)은 지난 3월9일 필립·잉(Philip Ing)씨등 8명의 아시안·캐네디언이 주동이 되어 창설된 이후 잉씨를 사무국장 대리로 해서 정부의 지원모색과 조직등에 힘써 왔다.

잉씨와 함께 2일 본사를 방문한 캐네시안의 한국계 회원 윤진희(Jean Yoon)씨는 이 모임을 통해 이곳사회에서 자란 한국인으로서 한국·캐나다 어느곳도 고향이 돼주지 않는 좌절감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며 캐나다 사회에도 문화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원한다고 말했다. 윤양은 토론토대 문학과 2년재학중인 작가로 영어소설과 이미 UT에서 상연된 희곡을 발표한 적도 있다.

현재 윤양이외에 3~4명의 한국인을 포함,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인들이 회원으로 있다.

현재 아시아계 예술인들이 그 숫자나 재능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발표의 기회나 재질향상의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으며 1세와 2세간의 문화적 다리역할을 하는 캐네시안같은 연결체를 형성,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동 그룹의 목적을 밝히는 잉씨는 1차사업으로 올 9월7일부터 4~6주간 이름있는 토론토·아츠·프로덕션에서 일본계 토론토출생작가 티·쉬오미의 작품 황색열병(Yellow Fever)을 상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색열병〉은 83년 1월 뉴욕에서 공연되어 뉴요커, 뉴욕타임즈지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으로 일본계 이민이 2차전때 겪은 수난을 중심으로 사회풍자를 곁들인 미스테리물, 캐나다에서는 아직 공연된 적이 없다.

캐네시안은 월간 뉴스래터로 동양계 예술인의 동향을 서로 정보교환하는 외에, 11월에 영화제(Film Festival)도 가질 계획이다.

연회비는 15달러, 동양계로 예술·문화활동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416)533-2361

◆본사를 방문, 〈캐네시안〉 예술그룹에 관해 설명하는 필립·잉씨(왼)와 진·윤씨.

〈소 론〉

이민문학의 역사성 문제

박충도(전 문협회장)

캐나다 한국교민들의 이민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차츰 한국이민역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The Korea Times〉같은 교포신문사에서는 이민사자료실을 설치, 본격적으로 이민사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있으며, 또는 얼마전에는 연합교회에서도 교회이민사를 책자로 펴내었다 하며, 그외 다른 교회나 단체등에서도 이민사 자료를 수집및 기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한 필연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마련이며, 더우기 오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를 가진 한국민족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민역사 문제의 대두와 더불어 문학을 하는 이곳 이민작가들도 이민문학에 있어서의 역사성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을 하는 이곳 이민작가들도 이민역사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하는 역사기록과는 다른 차원의 「역사의식」을 갖는 문학을 써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역사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역사의식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한 역사기록이나 전통찾기의 작품은 역사의식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없고, 시대극적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의식 가진 작품써야

연대기소설은 과거 지향일 뿐

문학에 있어서 역사성의 문제란 단순히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다든지,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취급, 기록하나 문학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일어날지도 모를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며, 훨씬 보편적이고 구체적인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냥 과거의 전통이나 뿌리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소설은 연대기소설에 불과하며, 이러한 소설은 역사의식을 가진 문학이라 할 수 없다. 흔히 볼 수 있는 신문연재소설이나 일반 대중소설 중에는 역사를 다룬 작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은 과거만을 나열하는 과거지향적인 문학에 불과하며, 문학으로서의 초시대적인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역사의식은 과거성과 미래성의 양면구조를 갖고 있으나 T. S. Elliot이 말했듯이 과거지향성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과거의 후퇴나 과거로의 향수에 지나지 않는다.

◆박충도씨.

이곳 캐나다에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작가들도 단순히 한국의 전통이나 이민역사 나열식의 작품을 쓰기보다 좀더 역사의식을 가진 작품을 쓰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뜻은 단순한 과거지향적인 역사기록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의식을 갖고 과거를 음미하고, 과거사에 비추어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고 전망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화적, 민족적 역사배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민1세들의 이민생활의 발자취를 규명묘사함으로써 이민후세들에 대한 생활의식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민역사가 오랜 하와이나 미국의 한국이민사를 연구 비교, 검토하여 이곳 이민후세들의 생활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매우 추상적이며, 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역사학의 방법론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을 하는 이민작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고, 한국 이민교포들의 미래상

이민문학은 교포의 미래상 설정

초시대적 예술작품으로 승화돼야

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한국의 전통문화의 나열이나 뿌리만을, 찾아 헤매는 식의 과거향수적인 작품보다 우리들의 전통문화와 뿌리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관찰, 분석하며 이민후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역사적 Vision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시대극을 연출하는 신파극조의 문학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한 시대를 뛰어넘는 초시대적인 영원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으며, 과거로의 후퇴나 과거로의 향수에만 집착하는 문학범주에서 탈피하는 이민문학이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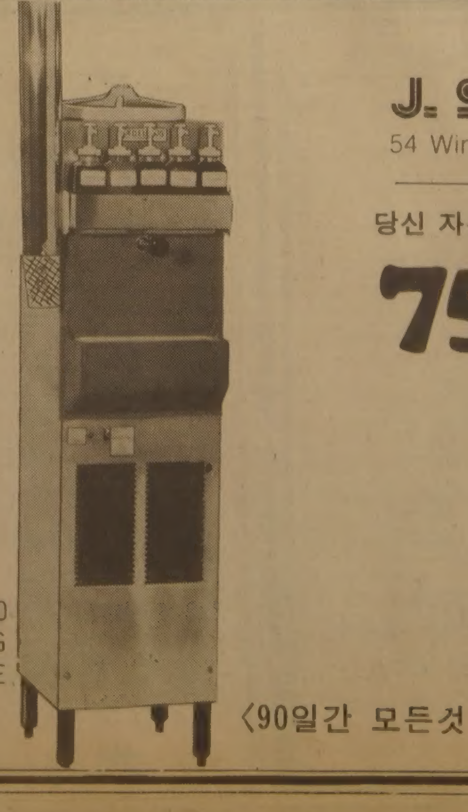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용신의「人間市場」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J. SHIFMAN & SONS LIMITED
54 Wingold Avenue, Toronto, Ontario M6B 1P5 • (416) 781-6667



당신 자신의 기계를 소유할 때는
75% PROFIT
판매이익은 75% 이상 입니다.
□5병및 펌푸
□1컵의 조제톡
□밑받침대도 포함되었음
※기계싸이즈는 15인치 × 15인치로써 일체 물이나 배수구가 필요없음.
아무 플러그에나 낄 수 있음(간단하게 사용편리)
자세한 내용은 ☎781-6667로 연락바람. *담배, 캔디, 종이류도 전문취급
〈90일간 모든것 일체보증〉

재위 3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

1983

1958

1968

1973

1978

찰스황태자에게 왕위계승 계획 아직없어
왕실측근 10년내에 계승할 것을 권유

엘리자베스영국여왕이 2일로서 재위30주년을 맞았다.

대영제국과 영연방의 최고의 상징적 통치자이며 황실의 계승자인 엘리자베스여왕은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영국국민들과 세계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슈라이어총독과 트루도수상은 이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아직도 정정한 여왕은 왕위계승자인 찰스황태자에게 승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27세때에 재위한 여왕은 현재도 많은 공식행사와, 연방국및 해외여행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버킹햄궁전에서는 자상한 어머니와 할머니로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영국인들은 30년전 죠지6세 의 서거에 따라 청초한 모습으로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왕위를 계승하던 엘리자베스공주의 대관식을 기억하고 있다.

한편 왕실소식통은 여왕이 당분간은 재위할 것임이 확실함을 시사하고 증조모인 빅토리아여왕이 81세까지 재위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왕측근은 늦어도 10년이내로 찰스에게 계승하여 왕실의 숨통을 트게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왕은 찰스황태자가 더욱더 왕위계승을 위한 책임과 훈련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왕은 몇차례 테러리스트나 불순분자로 부터 암살의 위협도 받았으며 현재도 극렬 아이리쉬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

1일부터 보트장 개장
자연보존지역 하트·레이크

메트로·토론토 자연보존지역인 하트·레이크(Heart Lake)는 6월부터 매일 오전10시에 일반인을 위한 보트장을 개장한다.

누구든지 개인소유 캐누, 세일 보트, 소형 보트(Non-Powerd)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입장료는 1대당 1달러이다.

보트가 없는 입장객은 시간당 3달러15센트인 보트를 임대할 수 있다.

처음 배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안내와 설명도 곁들인다.

하트·레이크의 위치는 7 하이웨이의 7킬로 북쪽의 하트·레이크로드에 있다.

주차료는 주중에 2달러, 주말엔 3달러.

사파리관광
한국노년회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는 오는 6월25일 체리농장및 사파리동물원 방문,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6월17일까지 선착순 80명으로 마감될 이번 관광단은, 25일 오전8시30분 크리스티 서브웨이 공원앞에서 출발하며, 회비는 1인당 20달러. 문의는 755-8079이다.

금혼축하

박봉준 옹
윤갑순 여사(박천봉씨 부모)
때 : 1983년 6월 11일(토) 하오1시
곳 : 오리엔탈팔레스(529 Bloor St. W. Tor.)

〈결혼축하〉

신랑 : 김성택씨 장남 주완군
신부 : 김현배씨 장녀 은희양
때 : 1983년 6월 11일(토) 정오
곳 : 토론토한인천주교회(83 Power St, Tor)
주례 : 최규식신부
피로연 : Inn on the Park 하오2시30분(레슬리 × 에글린턴)

한국일보
구독신청 · 광고
(416)533-2361

〈해외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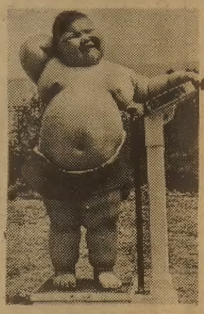
하루 1KG의 식사 다섯살 꼬마거인

(중공=AP) 중공호북성 산촌에 사는 김서 어린이가 저울 위에서 고개를 갸우뚱.

5살짜리 김군의 무게는 59Kg으로 여느 5살짜리의 3배이상 무겁다.

키 112Cm에 가슴둘레 91센티인 이 어린이는 매일 1Kg의 식사를 거뜬히 먹어 치운다.

김군의 머리는 정상이고, 몸의 균형도 잡혀 있으며, 20Kg의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힘장사다.


◆꼬마거인 김서군.

〈연재소설〉 혼돈 ㉟

글 이대준 그림 최미정

〈제3편〉 허 망

눈과 바람과 소금으로 죽어 버렸던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앙상한 나목으로 겨울바람에 윙윙 울며 떨던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때묻은 잔설을 덮고 있던 잔디밭은 산뜻한 초록의 봄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짜릿짜릿한 관능의 향락을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고깃떼들의 혼과 넋을 빼앗아 버리고, 서슴없이 나의 육체의 떡밥을 던졌다. 나의 육체의 떡밥을 살이 피둥피둥 오른 고기 앞에 던질 때마다 향락에 굶주린 고기들은 덜꺽덜꺽 삼키고 부른 배를 주체하지 못하면 나는 사정없이 그들의 부른 배를 밟아 버렸다.

고기들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통째로 삼키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던 재물들을 꽥꽥거리며 토해냈다.

내 어린 시절 어물시장이 가까워 생선 비린내와 오물 썩은 냄새가 떠나지 않는 골목에서 놀이감이 없는 사내아이들이 아직도 팔깍팔깍 숨을 쉬고 있는 복어를 훔쳐다 배를 불리우고, 풍선처럼 부풀은 복어의 배를 밟아 버리면 통째로 삼켰던 꼴뚜기와 새우를 토해 놓던 복어처럼 그들은 통째로 삼켰던 재물들을 토해 놓았다.

겨울동안 내 옷장의 구석에 몰래몰래 숨겨두었던 비밀금고는 달이 차가는 임부의 배처럼 부쩍부쩍 불러갔다.

나는 고달프고 외롭고 피로울 때는 불러가는 금고의 배를 만지며 스스로 달랬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나를 여왕으로 모실 내 성을 신축하리라."

나는 서서히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두둑한 내 비밀금고의 돈을 풀어 찬란한 무대를 장치하고, 발가벗긴 남성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여성들이 그들의 육체를 탐미하며 환호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내 일과는 춤을 추고 돌아오면 비밀금고의 두둑한 배를 만지며 꿈을 키우고, 밤마다 찬란한 꿈속을 헤메고, 아침이면 기분 좋게 일어나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번지는 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번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초봄부터 간간히 들려오던 나에 대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보통 여우가 아니라는구먼. 아주 계획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등쳐 먹는대."

"쉬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년한테 당한 남자들이 한 두 명이 아니래."

교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 스스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은 교포사회로 번져나가, 급기야는 온 시내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불룩한 금고를 만지며 흐뭇해 하고, 내 꿈의 실현을 위해 뛰어다니던 나는 점점 불안스럽고 초조하기 시작했다.

"유리야, 이 일을 어쩌면 좋지? 시내가 내 소문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말이야."

"언니는 이 정도의 각오도 없이 일을 벌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잠잠해질 테니까."

"그럴까? 정말 그럴까?"

"토론토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욕을 안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한번씩은 소문의 대상이 되어 욕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끄떡없이 살고 있지 않아요? 언니의 소문은 한동안 심심한 사람들의 입과 귀를 즐겁게 해주며 시내를 끓게 하겠지만 또 다른 소문이 발생하면 시들어 버릴 거예요."

"소문이 시들 동안 김사장이 나를 내쫓지 않을까?"

"언니는 너무 겁을 내고 있어요. 맨손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와서도 남성들 위에 군림하겠다던 용기가 시들어 버린 것 같애요. 김사장이 언니를 쫓아낸다고 해도 언니는 옛날과 같이 무능력한 여자가 아니예요. 돈이 있으니까요. 언니를 유능하고 우러러 보게 만들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나에게는 영주권이 없지 않니? 김사장이 고용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있어요. 변호사를 만나세요. 변호사가 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를 알면 쫓겨가고 싶다고 해도 언니를 내주지 않을 거예요."

꿈을위해 뛰어다니던 나는
소문때문에 불안·초조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겁을 내고 있던 나는 내가 부리며 이용해 먹던 유리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도 나에 대한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기세를 부렸다.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도 남자들의 빈정거리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소문은 표면화되어 가고, 나는 신경이 예민해졌다. 김사장의 기침소리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밤이면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김사장이 무서운 얼굴로 나를 쫓기도 하고, 비밀금고 속에 감추어둔 돈을 도둑맞기도 한 꿈을 꾸고, 안절부절 못하며 밤을 지새는 날도 있었다.

◆

태영의 아파트 안은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벌써 몇달째 공탕을 쳐온 그들은 풀이 죽어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간간이 들리는 한숨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침울하게 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뒤져봐야 별 볼일이 없을 것같애."

큰 눈알을 굴리고 있던 수한이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신문사 새끼들 때문이야. 그 새끼들이 떠들고 난 뒤부터는 계속 공탕만 쳤지 않아."

덕기가 목에 핏줄을 세우며 투덜거렸다.

〈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HOW ARE YOU DOING?

실제로 영어가 사용되는 미국에 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표현들이 많음을 누구나 느끼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인사하는 바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의 표현이다. 이 문형은 How are you? 보다는 격식을 덜 갖춘 표현이지만 저속한 표현은 아니다.

지난 3월5일 미국사상 최초로 있은 「카터 대통령에게 물어 보세요.」 Ask President, Carer, 라는 국민과의 전화 대화 프로에서 카터 대통령은 「통화자」 caller와의 대화에서 How are you doing? 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How are you doing? 의 문형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대답으로는 「좋아요」 Fine, Prettygood, Good, 등을 사용한다. 이밖에도 How's it going? What's happening? 등 여러 표현이 있다.

A: Hi, John.
B: Hi, Mark. How are you doing?
A: Fine. And you?
B: Great. What's happening?
A: Nothing much. I'm just taking one day at a time.
B: Good for you. Take care.

A:하이, 잔.
B:하이, 마크. 안녕하세요?
A:네, 당신은?
B:참 좋아요. 별다른 일이라도 있나요?
A:별 일 없어요. 안일하게 소일하고 있죠.
B:잘된 일이예요. 잘 가세요.

*I'm just taking one day at a time. 직역을 하여 한번에 하루씩 갖는다는 말인데 결국 「안일하게 소일한다」는 뜻.
*good for you:잘 됐다.
*Take care:Take care of yourself.가 줄어든 것으로서 「조심하라」는 말인데 헤어질 때 인사말로 「조심히 가세요」 「잘 가세요」라는 뜻.
*「발음」 John:미식발음인 경우 「잔」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966-4050

축하예배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펜티코스탈교회를 개척하여 이제까지 3년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써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봉사하여온 심상대전도사께서는 지난 5월4일 런던(온타리오)에서 개최된 펜티코스탈서부노회 주관 년차총회에서 약1,500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15명의 남자목사와 함께 목사((MINISTRIAL LICENSE FOR WOMEN)안수를 받으셨읍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촐한 축하예배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 하 예 배

일시 · 1983년 6월12(주일) 오후3시
장소 · 본교회(401×JANE S.)
300 QUEENS DR. TOR
전화 · 223-1914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교우일동

미시사가한글학교
여름학교 학생모집

미시사가 한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1983년도 여름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유치반 *고급반
*초급반 *중·고등반
*중급반 각 15명 내외
□수업기간 : 1983년 7월4일~7월29일(4주간)
□수업시간 : 월~금/ 오전9시~12시30분
□수업과목 : 한글, 음악, 미술, 체육, 야외수업 (사이언스· 센터 견학 등등)
□수업료 : 한 학생당 $30.—
□수업장소 : T·L·KENNEDY SECONDARY SCHOOL 3100 HURONTARIO ST.(#10 & DUNDAS 북서쪽)
□문 의 처 : MRS. 리 274-6127 MRS. 최 827-7057 MRS. 김 275-5974

미시사가한글학교 교장 김영사 이사장 이춘수

NEW WHITE ROSE PAINTING

아파트먼트 페인트전문

1 BED ROOM $185.00
2 BED ROOM $225.00
3 BED ROOM $265.00

새봄맞이 단장을 원하십니까?
집페인트—스페샬가격
☎431-2019

한국일보

수입 自由化

7월부터 3백5品目

뱀·지렁이등 18種은 規制

아이스크림
블라우스
냉장고
세탁기
넥타이
낚싯대
양복
家具
셔츠
껌

정부는 오는7월1일부터 가정용세탁기, 대형냉장고, 대형트럭, 전기모포, 넥타이, 껌, 아이스크림등 3백5개품목의수입을자유화 하기로했다. 그대신뱀, 지렁이, TV브라운관용유리, 銅塊, 표백화학펄프등 18개품목의 수입은 규제키로했다. 정부는 또 수입자유화와 아울러 수출자유화도단행, 지금까지 관련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을 할수있었던 밤통조림, 시멘트, 비료, 앨범, 일부신발류, 피아노등의수출을 자유롭게 할수있도록했다.

이에따라 수입자유화품목은 CCCN(관세협력이사회의국제상품분류) 8단위기준으로 종전의 5천7백91개품목에서 6천78개품목으로 2백87개품목이 늘어났으며 수입자유화율도 76.6%에서 80.4%로 높아졌다. 정부는 또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수입이 급증할것에대비, 껌, 포도당, 편직물,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등 62개품목의 관세율을 대폭인상조정했다.

상공부는 31일 오는7월1일부터 내년6월말까지 적용할 83년수출입기별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수입이 제한돼온 1천7백69개 품목가운데 3백5개품목을 자유화했다. 자유화된 3백5개품목중▲1백91개 품목은 수입을 완전자유화하고▲82개품목은 자유화하면서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했으며▲62개품목(30개품목은감시품목과중복)은 자유화와동시에 관세율을 인상조정했다.

상공부는 또 이미 수입이 자유화 되어있는 품목가운데 국산개발품목으로서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품목 (TV브라운관용유리), 환경 훼손및 국민보건위생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품목 (鹽化비닐), 국민감정상 혐오감을 주는 품목 (뱀·지렁이) 등 18개 품목은 다시 수입을 규제키로했다.

상공부는 또 내년의 수입자유화율을 85%, 85년 87%, 86년에는 선진국수준인 90%까지 높이기로하고 개방대상품목에대한 예시제를 실시, 상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투자예측을할수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수입예시제를도입, 산업별작업반을구성, 전체수입제한품목을대상으로 국제경쟁력을검토한후 단계별로 자유화대상품목을 오는 연말까지 미리 지정하기로했다.

상공부는 이번 기별공고 작업에서 수입자유화대상 품목선정기준을▲경쟁력유발가능품목 (조명기기및실크넥타이) ▲소비자보호를위한품목 (세탁기·냉장고·유아용품) ▲국제경쟁력보유품목 (섬유제품, 자동차용스프링, LP가스조정기) ▲수출비중이높은품목 (앨범·낚싯대·원면·토끼·산양등의 毛皮) ▲비교열위품목 (靑銅棒) ▲수요가한정돼있거나 미미한품목 (피마자) 등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책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수입이 제한돼있는 77개품목가운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직물류, 완구류, 앨범, 안경테등 6개품목만 자유화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호키로했다.

독과점품목 (전체1백64개품목) 은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91개품목가운데 綿服地, 10톤이상대형트럭, 3백ℓ이상 대형냉장고, 추잉껌, 아이스크림등 7개품목을 자유화함으로써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율을 44.5%에서 48.8%로 높였다.

한편 상공부는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일부품목의 관세율을 올렸는데 주요품목의 관세조정내역을 보면 포도당이 40%에서 60%, 추잉껌이 50%에서 90%, 편직물·여자용내의류가 50%에서 70%, 넥타이가 50%에서 80%, 냉장고·세탁기·가구류가 50%에서 90%로 높아졌다.

상공부는 앞으로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품목은 재무부에 요청해서 관세율을 올리기로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輸入급증 品目 감시강화

자동차등은 85년후 개방

상공부가 31일 발표한 수출입 기별공고에 따라 새로 수입개방된 품목과 제한되거나 금지된 품목에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영향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조치로 수입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입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별도 수입절차를 밟지않고 바로 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할수있게된다.

그러나 수입자유화와 동시에 수입감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승인전에 신청,구비서류중의 하나인 물품배포화약서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밖에 약사법등 특별법에 묶여있는품목은 해당협회등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소정의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자유화를 시켰으면서도 다시 수입감시품목을 분류시킨이유는.

▲앞으로 수입이 급증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감시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수입이 급증되거나 외국메이커들이 가격을 덤핑, 시장을 지배하려든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인 조정수단을 발동하게된다.

다시말해 ①긴급관세적용②수입충당제실시또는 수입지역제한 ③수입규격및자격제한④최종적으로 수입제한 품목으로 다시 지정하게된다.

—관세조정조건부수입자유화품목은 어떻게되나.

▲이품목으로 지정받게되면 현행 관세율보다 품목에 따라 20%~4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게된다.

—앞으로 정부의 수입자유화계획은.

▲원칙적으로 86년까지 선진국수준인 90%선까지 자유화 시킬계획이다.

상공부는 산업별 작업반을 편성, 오는 10월말까지 연도별 품목별 자유화계획을마련, 예시할계획이다.

이계획대로 간다면 86년에는 자유화대상 7천5백60개 품목중 기간산업과 농수산물을 포함, 10%가까운 7백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품목이 수입자유화된다.

—자동차 컬러TV등도 예시제에포함되는가.

▲포함된다. 자동차와 컬러TV VTR등은 85년이후에 가서야 수입이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수입을 자유화시키더라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 가격경쟁을 유도할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내용은.

▲특별법은 약사법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원자력법등 35개가 있다. 이법에따라 소관부처별로 수입을 허가하게되어있다.

수입기별 공고상에는 자유화된 품목들도 특별법대상이 되면 사실상수입제한을 받게된다.

—특별법에 묶여있던 수입제한 품목이 이번에 얼마나 풀렸는가.

▲약사법 독극물법에 묶여있던 3백90개 품목이 풀렸다.

—이번 조치에서 다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킨 품목은.

▲뱀·지렁이는 국민감정상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염화비페닐은 국민위생상 저해요인이 많다는점등으로 다시묶였다. TV브라운관용유리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보호육성하기위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金利인하로 景氣회복"

保護貿易주의 철폐도 합의

西方7國 정상회담 共同성명 채택

【윌리엄즈버그(美버지니아州)=李文熙특파원】서방7개국 경제頂上들은 31일 인플레억제와 금리인하 및 고용증대, 예산적자감축을 위한 정부지출억제, 환율의 안정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회복세에 접어든 세계경제를 계속 밀고 나가기로 합의하는 최종공동성명을 채택한뒤 제9차 윌리엄즈버그 경제정상회담을 마쳤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영국·서독·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등 7개국 정상들은 예정을 훨씬 넘겨가며 31일 새벽 (한국시간) 까지 3차공식 회담을 갖고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무역장벽을 제거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주최국인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은 마지막 3차공식회담이 끝난뒤 이번회의를 총정리하는「윌리엄즈버그經濟回復宣言」이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명「희망의 메시지」라 불리는 이공동성명은 『생산적인 투자확대및 실업감소와 인플레억제및 금리인하를 가져올수 있는 통화 예산정책을 추진해나갈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이 성명은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이 제안한 세계통화질서개혁을 위한 고위급 통화회의개최가능성을 언급하는등 국제통화체제개선방안에대해 계속 합의하기로 했음을 밝히고있다.

「윌리엄즈버그 經濟回復宣言」은 모든 西方국가가 對蘇교역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이례적으로 명시하면서 『東西 경제관계는 서방진영의 安保이익과 일치해야 한다』고촉구했다.

한편 31일 발표된 「윌리엄즈버그 經濟回復宣言」에 대해 美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성명이 西方7개국의 높은단결력을 과시한것이라 평가하면서 이공동성명이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라고밝혔다.

각국代表 레이건에 박수

레이건 美대통령이 30일 제9차西方선진공업국 경제정상회담의 최종공동성명을 발표한후각국지도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윌리엄즈버그(美버지니아州) 30日AP電=聯合】

民韓, 국회소집 촉구

民韓黨은 31일 상오 당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비롯한 時局전반에 관해 논의한 끝에 국회가 早期소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睦堯相대변인은 이 성명을 통해『이미 여야총무간에 6월초 소집키로 잠정합의한 임시국회는 어떤이유나 명분으로도 지체될수 없으며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국회소집을 지연시키고 있는 여당에 대해 당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회를 소집, 모든문제를 국회안으로 수렴하는 방법만이 賢策임을 촉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柳총재는 『최근의 시국전반이 어려운국면에있는만큼 黨차원에서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말하고 『나가서 시국전반에대한 대책을 모색하기위해임시국회는반드시열려야한다』고강조했다.

또 高在淸부의장은 당면문제에관한대책을 마련하기위해 黨內에 非常대책기구를설치하자고제의했으며 孫世一의원은 柳총재가 대통령면담을요청토록하거나 기자회견을 가질것을건의했다.

한편 民韓黨은 1일상오 국회에서 문공·내무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갖는다.

서울, 水道料 5%올려

서울의 수도물값이 1일부터 5%인상된다.

서울시는 31일 지금까지 10가구이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에만 적용하던 가구분할제를 6월1일부터 일반 가정에도 확대실시키로 하는한편 이에따른 상수도 수입결손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수도요금을 일률적으로 5%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주택 1가구이상인 전세가구들은 지금까지 적용돼온 누진제에서 벗어나 가구별로 사용량만큼 수도요금을 물어 혜택을 입게 됐지만 50만가구로 추정되는 단독가구들은 5%인상된 수도요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의 상수도 가구분할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전기료는 이미 81년12월부터 가구분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1주택 2가구인 경우 가구당 월20㎥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누진제를 적용, 3천5백25원 (가구당1천7백63) 의 수도요금이 나왔으나 가구분할제가 실시됨에 따라 9백90원 (가구당9백95원) 만 내면되고 1주택3가구인 경우 7천5백65원 (가구당2천5백22원) 을 내던것이 앞으로는 2천9백85원 (가구당 9백95원) 만 내면 된다.

퇴임 平統위원에 全대통령 親書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 의장인 全斗煥대통령은 31일 임기가끝나 退任하는申泰煥 학술원장등 1천1백39명의 平統자문위원들에게 親書를보내 在任기간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 親書에서 『北韓공산주의자들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赤化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 유례가없는 공산世襲王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를 굳게닫고 주민을 국제盲人으로만들려 하고있다』고 지적, 『따라서 우리는 국민적역량을 총집결해 北韓사회의 門戶를 개방함으로써 同族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에 참여해 통일의 의지와 실천능력을 연마하고 통일정책과 北韓의 실정에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지는것이 매우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원호사업확대 金총리 성명

金相浹국무총리는 31일 『국가有功者가운데는아직도 신체적 장애와 老齡으로 인해 自活이 어려운분이 적지않게 남아있다』고말하고『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들이 모두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도록계속 원호사업을 확대하고 원호시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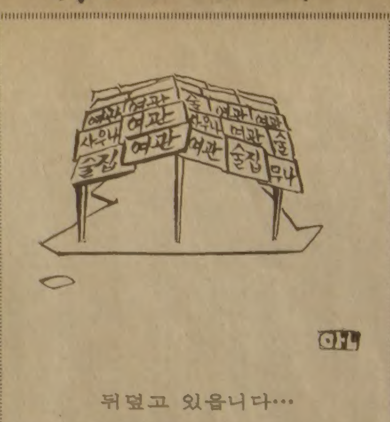
金총리는「援護의 달」에 즈음한 담화문에서『국가유공자들이 보여준 애국정신을 받들고 그분들의 가족을 위로하며 따뜻이 보살피는 일은 바로 이나라 국민 모두의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仲介業 法案 民正, 공청회열기로

民正黨은 31일 정책위산하 內務分科委를열고 內務部가 마련한 부동산仲介業법안을 심의, 이법안이 노인들이 운영하는 既存복덕방에 타격을줄 우려가있다는점을 고려, 이법안의 補完을위해 필요하다면 국회내무위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기로했다.

이에따라 이법안이 6월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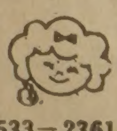
社會漫評



뒤덮고 있읍니다…

地平線

내년 4월부터 쓰이게될 일본중학교 및 일부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에서 중국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정이 가해 졌으나, 우리나라의 3·1운동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하다는소식이다 (30일자 연합통신). 중공으로 부터 집중적으로 받은 항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자세를 보인것과는 대조적인 인상이다.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의 여론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두고 들끓었을때 일본정부 당국은 인근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에따라 관계역사왜곡을 시정할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리정부가 제시한일제36년간의왜곡부분인19개항중 3·1운동, 창씨개명, 신사참배, 토지수탈, 한국어말살, 한국침략등 7개항은 시정하고 제2차 한일협약, 고종의퇴위, 의거, 관동대진재, 징병, 징용등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해온바가 있었다. 당초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시정문제에 있어서는두나라사이에 이견이 있어왔던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가장 머리에 두고 주목을해오고있는 3·1운동의 올바른시정에 인색하다는것은 지난날의 허물은 허물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선린과 우호를 구축해야할 두나라의 신세대에 걸어야할 역사적 요청을 외면하는일이라 하지않을수없다. ▼역사란 위대한 교과서이며 따라서 일본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난날의 허물을 깨우치고 그들의 새세대에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국가백년의 대계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고 침략의 죄과와 책임을 후세에 전한다는것은 우리의문제이기에 앞서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한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일본에서 새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듯한 군국주의의 낌새와 새로운 국가주의의 싹을 엿본다. 그런 풍토에서 그들이 그들의 역사교과서 속에서 지난날의 허물을 얼마나 깨우치고 있는가의 척도를 우리는 왜곡교과서의 시정도로 읽을수 있게 될것이며, 또 참된 이웃인가도 가늠하게 될것이다.


533-2361

주택,토지,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3107 Sheppard Ave. E.
M1T 3J7
Phone : 497-9794
(R)759-456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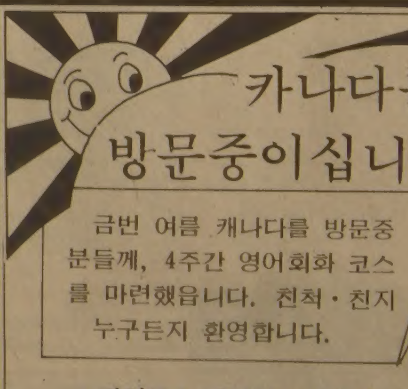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방위건 치과개업
方偉健齒科開業

Dr. Ben Wai Ken Fong
Dental Surgeon
Heron Gate Mall
1670 Heron Road, Unit 42
Ottawa, Ontario
K1C 1V2
Telephone 737-7321

동국대학교동문회
하기야유회공고
동대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새여름을 맞이하여 83년도 하기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온가족 모두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ㅁ일 시 : 1983년6월25일(토) 12시
ㅁ장 소 : Darlington Provincial Park, Picnic Area #1
(401East로 가다가 Exit 425에서 Courtice Rd. South)
ㅁ연락처 : ☎421-5613 오 ☎431-5232 유 ☎494-0124 김
카나다 동대동문회
회장 오 창 섭


카나다를
방문중이십니까
금번 여름 캐나다를 방문중 분들께, 4주간 영어회화 코스를 마련했읍니다. 친척·친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영어코스 개강일—6월27일
—7월25일
—8월29일
자세한 문의는 923-6947
무료 안내책자를 제공합니다
14 COLLEGE ST. TOR.,
ONT. M5G 1K4
☎923-6947

社說

援護의 달 6·25의 달

6월이면 오늘의 나라가 있게 된 내력과 맥락을 생각하게 된다. 3년의 전쟁과 越南참전, 獨立과 自由를위해 펼친 日政과의 싸움, 그과정에 새겨진 무수한 護國의 꽃과 별들의 얼굴 그리고 先烈과 志士들의 모습이 「英雄」처럼 떠오른다.

그래서 6월은 생생하고 숙연해지는 理致를 갖는다. 또 살아남은 者의 意味와 援護의 명제를 되씹어 보게 한다.

이 한달동안 하루에 한번정도 만이라도 잊었던 넋들을 돌이켜 봄이 어떠할까. 나라의 존재와 主權이 그 영웅들의 공훈으로 이뤄졌음을 다시 일깨우도록 할일이다. 우리의 삶이 곧 그분들의 후광에서 온것임을 간직해야 한다. 아직도 옛날 그敵들과의 對峙나 競爭이 이어지고있는 現實역시 빼놓아서는 안될것이다.

좀더 가까이 우리둘레도 살펴봄직하다. 忠靈塔은 조용히 나라안 도처에 치솟아있다. 碑石은 말이없다. 참된愛國者는 권세나 물욕이없음을 가르치고있는 像이다. 그 넋들과 해후하고파하는 어버이들의 뜻이나 未亡人의 정은 지금도 절절하기만 하다. 그가운데 생계에 쪼들림을 받는이가 적지는 않을것이다. 不具의 病床생활을 30여년씩이나 하는이들도 있다. 自活을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戰傷者와 도발을 응징하려는 意志의 대열도 굳세다.

이런 실상과 6월이 가리키는 援護의 條理앞에 부끄러움은 과연 없을까. 6·25로부터만 헤아려도 이미 서른세해째다. 「援護의 달」행사가 국가적 국민적규모로 치러진지 20년을 넘는다. 한데도 대상자 모두의 완전자활은 아직 먼 실정이다. 그간 원호를 하려는 마음과 施策의 펼침은 있었지만 국가유공자에대한 평가나 원호실적이 결과적으로未洽했음을 드러내고 있는것이다.

그뿐아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愛國者, 하찮은 功을 내세우는 오만한 경향등에밀려 참된有功者의 빛과 援護의 大意가 스러지고, 무공자들이 오히려 더 고개를 들며 판을 치는 한구석 또한 없지는 않다. 한자리에 돈백만원짜리 料亭출입을 즐기면서 희생자·공헌자의 원호에는 인색한이가 있는가하면 私邪에 집착하여 不條理·타락·퇴폐를 서슴지 않는 소수의 무뢰한들마저 없지는 않다.

援護의달, 이런 恥部나 문제점은 모두 가셔져야 하겠다. 유공자를 대접하는 行政의 위치와 기능은 좀더 높여야 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원호사업5개년계획을 보다 적극화시켜 「援護」에서 「自活」로, 대상자들의 「명예제대」길을 넓혀갔으면한다. 비단 정부뿐 아니라 이를 위한 여러사람들의 大我的 휴머니티의 발양이 아쉬워지기도 한다. 6월은 그러해야할 精誠의 달 이다.

自由化는 試鍊이다

상공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적용할 『83년도 수출입公告』를 통하여 아직껏 수입이 제한돼있는 1천7백69개 품목가운데서 3백5개품목을 새로 수입자유화시키기로 하고, 반면 새로 수입제한 18개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은 종전의 5천7백91개 품목(CCCN분류기준)에서 6천78개로, 수입자유화율도 종전 76·6%에서 80·4%로 높아진다.

이와아울러 상공부는 수입자유화 豫示制에따라 내년도의 수입자유화율은 85%수준으로, 86년도에는 선진국수준인 90%까지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단계별 자유화 대상품목을 책정·예시한다.

이로써 정부는 그동안의 일부 반대 의견마저 물리치고, 開放경제체제에 걸맞도록 점진적이면서도 확고한 수입자유화방침을 進一步시켰다. 수입제한이나 관세장벽등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오히려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느니보다는, 수입의 門戶를개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고 품질향상 또는 소비자보호에도도움이되게하자는뜻이다.

흔히 국산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품목의 수입을전면금지 또는 제한시키거나, 높은관세를 물려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등은 해당업종의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이로울지 몰라도 국민경제전체로 봐서는 폐해가많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뜻에서, 이번 공고내용은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자유화율을 높인다고해서 한꺼번에 모두 개방하는게 아니라, 경쟁유발가능품목이라든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목 또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가졌거나 국내생산이 없는것등으로 구분해서 적용시키고 있음은 급격한 수입자유화에따른 국내산업의 충격을 되도록 줄여보자는 정책적기도가 엿보이는 만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의 교역상대측인 선진국들에서,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시키는 구실가운데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낮은 수입자유화율을 꼬집고있는데, 비추어, 언제까지나 수입제한조치를 고집할수는 없다.

더우기 이런조치는 앞으로 선진국경제를 지향해서 가깝군 장래에 OECD (선진국 경제개발기구) 가맹을 바라고있는 마당에서 볼때 당연히 거쳐야 할 단계적 과정이요, 試鍊임을 알아차려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자유화를 기화삼아 쏟아져 들어오게될 외국제품의 덤핑攻勢에 대비하고 무정견한 외제選好사상을 부채질하는 결과가되지 않도록 경계와 감시를 세심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頂上의 政治結束

미국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린 서방7개국 경제정상회담은 西方의 결속을 과시하고 어제 폐막되었다. 3일간 계속된 회의는 「윌리엄즈버그 경제회복선언」을 발표하고, 西方간의 높은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경제결속에다가 이례적으로 정치결속까지 과시한것이 특기할만한 일이다.

프랑스의 미테랑대통령은 약2천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고금리정책이 세계통화체제를 혼란케하며 세계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회담에 임하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프랑스가 강력히 주장했던 국제통화체제개편을 위한 국제회의의 필요성은 공동성명에 언급되지 않았다.

서방선진국들간의 첨예화된 의견대립은 조정·협력으로 무더어지고, 「희망의 메시지」로 불려진 10개항선언을 채택한것이다. 예상보다 훌륭한 성과다.

공동성명은 인플레이션없는 지속, 국제환율안정, 고용창출을위한 노력증대를 다짐했다. 말썽이된 미국의 막대한 예산적자와 고금리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은것으로 시사되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개도국 외채상환위기에 대처하는 서방의 공동전략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문제의 농쟁거리가,콜西獨수상의 말대로, 2, 3일간의 정상회담을통해 제거되리라 기대할수는없다. 세계경기회복기운을타고 西方간에 보다 나은 협력의 분위기와 토대를 마련한것이 뜻깊은 일이다.

이번회의는 西方간의 경제결속을 넘어선 정치결속을 보여준 것이 더 큰 세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것은 점점 고조되어만 가는 세계적 긴장고조를 완화하는 촉매작용을 할것임에 틀림없다.

西方정상들은 공동성명발표에 앞서 이례적으로 對蘇군축협상을 촉진하는 7개항의정치성명을 채택했다. 西方7개국이 9차에 이른 경제정상회담에서 소련에대한 전략적 단결을 다짐한 성명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29일의 2차회담에서 제네바군축회담이 실패로 끝날경우 퍼싱II와 크루즈 미사일의 서유럽배치를 강행키로 결의했다. 지난 79년 나토국방상회의가 이들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한 것을 정상들이 재확인한 것이다.

西方의 對蘇정치단합을 경제정상회담서 이루한것은 레이건미국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다. 소련의 안드로포프는 미국 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를 막기위해 美-나토간의 분열책동을 주무기로 삼아왔다. 그 전략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제네바군축회담 전망이 밝아지는것 같다.

나카소네 일본수상이 對蘇결속정치성명에 합의한것은 일본安保를 나토와 일체화 시키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韓·美·日의 3각安保체제가 나토와도 간접연결된것으로 윌리엄즈버그의 정치성명이 아시아에 주는 波長도 결코 작지않은 것이다.

유럽配置 중거리核 감축

"美·蘇, 가을까지 잠정合意"

"妥協실패면 퍼싱II 배치"

WP報道

【워싱턴UPI=聯】미국과소련은 오는 가을까지는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의 감축에 관한 잠정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의 西獨방문을 수행중인 한 고위관리가 전망한 것으로 30일 보도했다.

美國의 워싱턴·포스트紙에 따르면 이 관리는 군축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西歐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소련이 믿게 될 경우에만 그러한 잠정협정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따라서 소련에 확신감을 주기위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맹국들이 중거리미사일배치계획을 둘러싸고 결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어 『나는 미국이 나토동맹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중거리미사일 감축에 관한 잠정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트紙는 와인버거장관이 그같은 잠정협정의 체결시기나 그 여부에 대해 예측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比에 5年間 9億弗 美, 基地使用 補償

【마닐라AP=聯】미국관리들은 필리핀의 클라크공군기지와 수빅灣 해군기지등 두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오는 84~89년까지 5년간 약9억달러의 軍援및 經援을 제공키로 확약했다고 필리핀정부의 고위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 對필리핀 원조계획이 6월1일 조인될 새 군사기지 협정에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美·필리핀간의 현행군사기지협정은 금년으로 만료된다.

濠, 對蘇관계 정상화 "모든 조치풀었다" 발표

【캔버라AP聯=特約】호주정부는 31일 소련과의관계를 완전정상화하고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후 호주정부가취한 양국간 공식관계에있어서의 모든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빌·헤이든호주외상은 이날 성명을통해 호주·소련 양국간의 관계를 제한하는 쌍무적 제재조치들은 아무런의미가 없다는사실을 인식할때가 됐다고 밝혔다.

전쟁氣流 오락가락…

이·시리아, 「전쟁과평화」陽動작전·

【베이루트聯·AP=聯】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한때 남부레바논의 베카계곡 80km전선에서 전쟁일보전까지 치달았으나 30일현재 일촉즉발의 경계태세만은 서로가 풀지않은채, 일부 군사력을 빼돌리는등 전쟁의 열기를 냉각시키고 있다.

전선지역의 관측통들은 시리아군이 지난26일 이래 장갑차와 병력등 군사력을 이 지역에 집결시켰으나 29일하오부터 그 집결의 강도를 늦춘데 이어 30일에는 이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리아측의 전선을 둘러본 서방기자들도 시리아군의 장갑차들이 흩어지고있으며 일부 시리아군병력이 철수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병력 1만명규모의 3개기계화여단을 이 지역에 증파,지난여름이래최고의병력을이지역에 주둔시켰었다고말했다.

아라파트 暗殺모면

팔랑헤黨방송 보도

【베이루트·다마스커스AP=聯】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을 노린 암살기도가 30일 레바논에서 발생했으나 아라파트의장은 목숨을 건지고 경호원 1명이 사망했다고 레바논의 팔랑헤黨소리방송이 『독자적인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방송은 아라파트 의장에 대한 암살기도가 이날상오 9시30분 (한국시간)께 레바논-시리아 국경부근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의 PLO관리들은 이같은 팔랑헤黨방송보도를 「근거없는 날조」라고 단호히 부인했다.

2000년의 世界는 밝다

—美사회학자들 展望

오는 2000년의 세계는 3년전 카터前美대통령에게 제출,공개된 보고서에서 나타난것처럼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밝은미래를 맞게될 것이라고 美사회과학자들이 29일 전망했다.

뉴욕 허드슨연구소의 미래학자인 허만·칸박사와 일리노이대학교의 경제학자인줄리언·L·시몬교수는 이날열린 美과학발전협회 연례회의에서 『세계의 전반적 경향이 악화되기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 그와같이 전망했다.

이들 학자들은 지난80년에 발간된 2000년의 세계전망보고서가 국가의 주요정책에 영향을 미칠만큼 전율스러운 어두운 요소들로 점철돼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80년예상했던「전율스런 어두움」서 모든것 改善되는 樂觀的 미래가…"

오는 2000년의 세계는 인구·식량·자원·공해및 생태적 환경문제등에 있어 그리 심각하지 않은 밝은 미래를 맞게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같은 전망이 종합적관점에서 본 낙관적인 분석이지 반드시『장미빛미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오는 2000년의 세계는 개선의 토대위에서,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의 기아와 질병·지식의 빈곤및 기회균등의 결여, 전쟁과 공해문제등 위협적 요인들에 직면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자들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부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율=산아제한·산업현대화및 어린이사망률감소등에 힘입어 저개발국들에서조차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식량및 농지문제=세계인구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기아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으나 곡물가격및 생산량·기아사망률추이등에 비추어 식량공급은 점차 개선돼가고있다. 또한 농지면적도 크게 제한을 받지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더욱확대될 전망이다.

▲광물자원=광물자원은 점차 감소될 것이나 그렇다고해서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다.

【디트로이트=UPI】

中共, 孔子사상 再評價 인정

北京周報"중국정신의 영원한 보물"

중국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상가중의 한사람인 孔子(BC551~479)의 사상이 오늘날의 중공사회에서는 여전히 그가치를인정받고있다고 중공의 주간지 北京周報가 보도.

이잡지는 공자사상 가운데 『봉건적잔재』만 제거된다면 『오늘날에도 통용될수있는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잡지는 또 공자의 사상을 재평가할 시기가 도래했으며 오늘날의 공자연구가들은 공자를『위대한철학자』또는『정치사상가』로 추앙하고 있을뿐아니라 그의 가르침을『중국문화와 정신의 영원한보물』로 간주하고있다고 지적했다.【AP】

◇萬里長城서「사랑의 만리장성」 美國인기TV드라마 「러브·보트」에 초청배우로 출연중인 우술라·안드레스양과 존·포사이드씨가 萬里長城을 배경으로 열연하고있다. 【北京30日AP聯=聯】

海外토픽

지참금 더요구하다 新婚 첫날밤鐵窓行

인도의 한신랑은 신부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더달라고 요구하다 신혼첫날밤을 신부 품이 아닌 철창속에서 보내게 됐다. 우타르·프라데슈州 관개성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샤말·다얄이라는 이신랑은 신부측으로부터 받은 예물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 끝에 장인될 사람에게 오토바이1대와 1만루피(80만원)를 더 주지 않으면 신부를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동네사람들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된것.【AP】

◇西獨의 베니스 대홍수로 물바다가 된西獨트리에르지방 인근의 센겐마을거리에서 두노인이 유유히 낚시를 즐기고있다. 【트리에르30日AP聯=聯】

"日本人 감정은 종잇장처럼 얄팍"

中共紙 "환멸의天國" 신랄히비판

중공은 최근 일본인들이 중공인들보다 풍부한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고있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감정은 종잇장처럼 얄팍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사회를 신랄히 비판했다.

북경의 光明日報는 2차대전후의 혼란기중 中共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日本에 정착하기위해日本으로돌아간「전쟁고아들」의 말을 주로인용, 일본사회를「환멸의천국」이라고 묘사.【聯】

人事異動

내무부 ▲城南市長 林敏鎬(승진) ▲光明市長 李浩善(〃) ▲龜尾市長 申羽均(〃) ▲釜山海雲臺구청장 秦洛鉉(〃) ▲〃중구청장 金萬淵(〃)

법무부 ▲서울城東구치소장 鄭甲燮(승진) ▲光州교도소장 鄭求福(〃) ▲清州보안감호소장 朴玟熙(〃) ▲青松제2보호감호소장 金炯濮(〃)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장 朴時夏(총무과장)

보사부 ▲국립木浦결핵병원장 宋善大(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의료원세균과장 馬濟弘(신규)

노동부 ▲공보관 具然春(승진)

조달청 ▲조정국장 李在勲(조달청중앙보급창장) ▲중앙보급창장 徐昌政(釜山지청장) ▲釜山지청장 姜最薰(외자국심사과장)

특허청 ▲심사4국장 周龍錫(승진) (1日字)

상공부 ▲상역국수출1과장 鄭惠秀 ▲〃수입관리과장 吳盈教 ▲통상진흥과장 李時應 ▲국제협력과장 李源浩 ▲중소기업국진흥과장 朱秀炫 ▲기계공업국정밀기계과장 蔣憲 ▲상공부근무 秋俊錫 ▲〃 趙政璨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직무대리 金七斗 (30日字)

에너지硏 이사장 朴正基씨를 選任

한국에너지연구소는 31일 제3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成樂正(56·한국重工業社長)理事長의 후임으로 朴正基 韓國電力社長을 선임했으며 李春五감사를 연임시켰다.

在日거류민단募金 독립誠金어제전달

張聰明在日거류민단장은 31일 在日거류민단이 모은 1억3천3백여만원의 독립기념관건립誠金을 독립기념관추진위 安椿生위원장에게 전달했다.

政局往來

대통령演說文集 발간

대통령비서실은 31일「全斗煥대통령演說文集」제3輯 5천부를 발간,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각급기관과 교육계 경제계 언론계등에 배포중.

4×6倍版 크기에 4백20페이지로 돼있는 이연설문집은 지난해 3월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있었던 全대통령의각종 致辭 아프리카4개국및 캐나다순방때의 각종연설과 頂上회담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등을 싣고있다.

연설문집 머리에는 이기간동안에 있었던 全대통령내외의 국내외동정을 컬러사진으로 싣고 있으며 연설문마다 제목을 달아 연설문내용을 한눈으로 알아볼수있게 편집.

또 연설문집 말미에는 연설문내용을 분류한「분야별 찾아보기」를 실어 연설문을 쉽게 찾아볼수있게했다.

"일하는 政黨되도록"

31일 民正黨 中執委상임위는 6월임시국회대책을 비롯한 당면문제등에관해 활발한 의견교환.

이날 陳懿鍾대표는 인사말에서 『어제 중앙위 정기회의를 끝으로 黨개편이 완료됐으며 이를 기초로 民正黨은 큰스케줄을 만들어 하나씩 풀어가는 일하는 정당, 움직이는 정당이 되어야겠다』고 政策委의 완전稼動을 당부했다.

이날회의는 6월국회문제를 李鍾贊총무에게 一任했는데 회의후『임시국회 소집여부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金瑢泰대변인은 『국회소집문제는 당면문제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열어야한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없다』고 강조.

金대변인은 또『民正黨은 중앙위원체회의를 계기로 制度圈속의 정치이외의 일과는 상관이없이우리들이 깔고있는 페이스대로 國利民福을위한 정당으로 계속전진할것』이라고.

1시간동안 爛商토의

31일의 民韓黨 당무회의는 임시국회소집과 시국수습문제등에 관해 한시간 가까이 熱議.

▲林鍾基총무=정부·여당의사정으로 총무회담을 못 열었는데 가급적이면 週中 국회소집을 매듭짓겠다.

▲辛相佑부총재=국회가 반드시 열려야한다는 것을 黨의 결론으로 발표하자.

▲許京萬의원=지도부는 일부나마 黨이 국회소집을 원치 않는 것처럼 알려진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黨이 四面楚歌에 있으니 서로 기분이 흡족치않더라도 힘을 합치자"

▲孫世一의원=제반 문제에 대한 당의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총재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기자회견을 해야한다.

▲柳漢烈사무총장=당이 四面楚歌에 있으므로 서로 기분에 흡족치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힘을 합치자.

▲高在淸부의장=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기위해 黨內에 非常대책기구를 구성하자.

▲金元基의원=시국에 대처하기위해 모든 大小黨기구를 적극 稼動시키자.

▲柳致松총재=6월 국회는 시기적으로나 시국의 심각도에 비추어 반드시 열려야 한다.대통령면담 요구등은 충분히 검토, 대책을 강구하겠다.

총무회담 늦춰질 전망

31일 열릴것으로 豫告됐던 3黨 총무회담이 不發됨으로써 6월 국회문제를 다룰 총무들의 접촉은 당분간 늦춰질 전망.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당초 30일 李鍾贊 民正黨총무와 만난뒤 31일중 총무회담을 갖겠다고 예고했으나 『끝내 李 民正총무와 접촉하는데 실패했다』고 不發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구나 林총무는 脫喪을 맞아 31일밤 歸鄕(木浦)함으로써 당분간 총무對坐는 어려운상태인데 李民正총무는 이날상오 중앙당사에서열린 中執상임위에 참석한뒤 『임시국회를 연다는 기본입장은 不變』이라고 거듭강조.

한편 국회총무실을 홀로지키고 있는 李東鎭국민당총무는『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때만이 難局을 푸는데 도움이된다』고 국회소집을 촉구하면서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국회기피는 背信행위

議政同友會의 李龍澤회장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국회를 기피하는것은 국민에대한 배신행위』라며 6월임시국회의 早期소집을 강력히 촉구.

그는『이번국회는 與野간의 합의이자 국민에대한 약속사항』이라고 상기시킨뒤『이순간 어느누구도 국회소집을 반대하지 않는데도 열지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고 反問했다.

李회장은 또『요즈음 국민들이 국회를보고 한치앞을 내다보지못하는 白眼들의 모임이라고 지탄하지 않을까 매우걱정스럽다』고 피력.

그는 특히『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안 35건, 정부제출 법안 12건, 건의안 5건, 청원 51건등 案件이 山積해 있다』고 지적, 『국회소집을 둘러싼 昨今의 입씨름은 國利民福보다 黨利黨略에 치우쳐 자기의 입장만을 먼저내세우는 인상이 짙다』고 3黨을 싸잡아 비난했다.

씨알한국인학교 여름학교 안내

The See-All Korean School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데이케어 프로그램

▲연령 : 3~4세
▲기간 : 7월4일~8월26일(8주간)
▲시간 : 오전8시~오후6시

금년 처음으로 3,4세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써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한국인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영어의 환경(유치원)에 준비과정 없이 들어가는 것은 어린이 심리현상에 큰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영어도 가르치며 한국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려는 것이 이번 탁아소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Superviser Diane Morris씨를 모시고 영어교사1명, 한국인교사 3명으로 32명의 어린이들을 받아드리겠읍니다.

1주에 $50(간식포함, 점심은 각자준비)

▲신청 : 원하는 주일을 기입하셔서 수표와 동봉, 위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겠읍니다.

국민학교·프로그램

▲연령 5세~12세
▲한국어 : 무료. 한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여름학교입니다. 10년이상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진과 토론토교육국의 보조로 이루어집니다.
▲특수프로그램 : 한학생이 두과목을 택할 수 있음.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등 8과목에 전문교사진이 지도함.
▲수영 : 일주일에 2번씩 토론토교육국, 또는 시경영 수영장에서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음.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 30분
▲야외활동 : 운동회, 소풍, B.B.Q., 졸업파티등을 통해 즐거운 금요일을 보냄.
▲수업료 : 한학생 $180, 둘 $350, 셋 $500.
▲학교버스 : 4대의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에 따라 노선이 정해집니다. 버스신청은 전화 :441-2986, 6월1일까지. 한학생$150, 둘$290, 셋$40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 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중학교 프로그램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 렌트비 $20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콤퓨터 (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충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와 Public Speech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Mr. Kerwin,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 I $140
▲학생이 4명 이하일땐 과목취소
▲두과목을 택할땐 $250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한국어와 예능의 전당

씨알한국인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같은交通사고 두번處罰

①合意후 罰金刑↓ ②死亡하자 禁錮刑

법조계 "一事不再理에 위배"
검 찰 "致死부른過失 起訴"
대법원 "국민의 法감정 반영"

교통사고를 낸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은 운전사가 피해자가 죽자 다시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처벌받지않는다」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원칙(12조1항)을 위배하게 아니냐는 시비가 걸린 케이스여서 법조계의 관심이 걸렸다.

대법원형사부 (주심 鄭泰均대법원판사)는 31일 버스운전사 張鍾太씨(41·光州市 北區 中興2洞 324의18)에대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張씨의 상고를 기각, 금고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張씨는 지난1월21일 낮12시55분께 光州市 北區雲岩洞 앞길에서 전남5아2109호 시내버스를 운전하고가다가 길을 건너던 임경숙씨를 치어 임씨에게 뇌간부손상등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운전사 張씨는 피해자 임씨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사망사고가 아닌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을 때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조항에따라 형사처벌을받지않았다.

다만 경찰은 張씨의 사고원인행위가 된 도로교통법상의「안전의무불이행」행위에 대해 범칙금 1만5천원의 통고처분을했고 張씨는 즉시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피해자 임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사고15일후인 2월4일 사망함에따라 光州지검은 張씨를 같은사안으로 다시기소했고 1, 2심에서 각각금고8월과 6월을 선고받은 張씨는 이에불복,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張씨의 상고를기각, 張씨는같은사안으로 두번처벌을 받게된것이다.

지난82년1월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된후 이같은 「사건」이 나왔을경우 다시 처벌할수있느냐, 없느냐에대해 검찰자신도 통일된 지침을갖고있지못했다. 그러다가 光州지검이 張씨사건에대해 기소품신을 해오자 대검은대법원의 판례를 구하기위해 모델케이스로 기소할것을 지시했었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취지는『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의법감정과 사회정의및 형평의 원리를 반영』한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판결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있다.

원래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물적피해만을 일으킨 교통사고차량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않는대신 벌과금을 물리도록하는 규정이었다.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기때문에 범칙금통고처분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아닌한 인명피해를낸 운전자라도 처벌할수없게 되자 도로교통법을 개정, 이러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물릴수있도록 했었다.

따라서 같은 인명피해교통사고 (사망사고가아닌)라도 특례법에외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며 범칙금통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처벌을 받지않을때는 통고대상이 되는 애매한 법규정이 돼버렸다.

문제는 처벌을 안받게돼 통고처분을 했는데 張씨경우처럼 그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다시 처벌할수있느냐는것이었다.

범칙금통고대상이 된 도로교법상의 안전의무불이행이 곧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동일한 행위에대해 두번 처벌할수없음은 물론이다.

검찰은 이번사건을 기소하면서 범칙금통고대상행위와교통사고원인행위는별개의 행위라는 논리를 내세워 기소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범칙금통고대상행위인 안전의무불이행위가 교통사고의 한원인이 된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망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과실등 업무상과실행위가 있다는것이다.

따라서 범칙금통고처분과는 별도로 업무상과실로 인한 치사에 대해 다시 기소할수 있다고 본것이다.

이에대해 李範烈변호사등 재야법조계인사들은범칙금통고대상이었던 안전의무불이행이 곧 사고원인행위로 보여지므로 범칙금통고처분의 효력은 그후의 사망사고에 까지 미친다』면서『이미 처벌받은 행위를 다시 처벌한는것은 명백히 일사부재리원칙을 규정한 헌법위반』이라는 반론을 폈다.

한편 대검은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시 범칙행위에 대해 소추받지않는다」고 규정한 도교법조항에「범칙금통고처분후 피해자 사망시는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도교법을 개정할것을 법무부에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崔鍾植기자】

교통사고 特例法 合意땐 처벌못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사망사고아닌 교통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으면「8가지 중과실행위」에 해당하지않는한 형사처벌을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반면에 도로교통법은 사고의 원인행위가 된 전방주시태만, 차선거리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위등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을 물리도록규정하고「범칙금을 납부한자는 해당범칙행위에대해 다시 소추를 받지않는다」고 단서까지 두고있다.

멧돼지20마리 不法포획

原州지검, 5명구속 4명입건

【原州】春川지검 原州지청 金大權검사는 31일 강원도 일원에서 멧돼지를 불법포획한 尹석범씨(45·강원平昌郡珍富面下珍富5里)등 5명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尹영수씨(46·〃)등 4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金안수씨(40·서울東大門區龍頭1洞39의6·현대총포사 주인)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따르면 尹씨는같은 마을 金종익씨(29·구속)와 함께 지난해 11월초부터 지난2월말까지 수렵기간동안 1인당 멧돼지 2마리씩만 잡게 되어있는것을 무시하고 平昌郡珍富面五臺山과 溟州郡旺山面大基里산 일대에서 멧돼지 9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한마리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은 혐의이다.

또 金석길씨 (28·구속·강원平昌郡道岩面屛內里4반)는 지난 2월18·19일 양일간에걸쳐 몽둥이·쇠스랑및 덫으로 屛內里속칭 숙새골에서 멧돼지 9마리를잡은 혐의이며 송영순씨(28·구속·平昌郡道岩面屛內里4반)등은 수렵기간이 지난8월말께 平昌郡珍富面新基里 속칭 구자리굴에서 사냥개 3마리를풀어 24kg짜리 멧돼지 한마리를 불법으로 잡았다는것.

검찰은 이들이 설악산 반달곰을 사살했는지의 여부에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산림공무원들이 수렵기간에 멧돼지 불법포획 감시를 소흘히한점을 중시, 관계공무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聯】

都產회관앞서 不法시위 네大學生 징역8월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鄭萬朝부장판사)는 31일 金在棄(20·잘로회신학대2년)、趙成浩(22·서울산업대2년)、余昶鎬(21·서울대법대3년)、吳鎭宇피고인(23·성균관대사학과2년)등 4명에 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까지를 선고한원심을깨고4명모두에게징역8월씩을선고했다.

金피고인들은 지난해10월7일 하오8시께「원풍모방근로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울永登浦區 堂山洞 도시 산업선교회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의규정상 시위주체는 다수인에대해 시위를 주장또는 개최하거나 이를주도, 주관하는자를 말하고 시위목적에 찬동, 단순히 참가한사람까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며『金피고인등이 이모임을 사전에알고 찾아가 시위에 참가한 사실만인정될뿐 주최했다고 볼수있는 증거가없다』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시위 西江大生3명 3年·2年6月선고

서울형사지법 제8단독 趙弘殷판사는 31일 西江大생 金相玉(22·사학과4년) 李泰榮(22·화공과3년) 姜熙東피고인(22·사학과4년)등 3명에대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에게 징역3년, 李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金피고인등은 지난3월22일상오 교내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고 시위를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高宗딸 德惠옹주 高熱증세로 入院

朝鮮朝 高宗황제의 딸德惠옹주(72)가 지난24일부터 고열증세로 한강성심병원 813호실에 입원치료중이다.

德惠옹주는 그동안 昌德宮樂善齋에서 李方子여사와함께 쓸쓸하게 여생을살아왔었는데 지병으로 고생하다 갑자기 고열증세를보여 입원했다.

올들어 最高 기온 浦項 어제36·1도

지난주말부터 기승을 부리고있는 무더위가 31일 浦項지방의 수은주를 36·1도까지 끌어올려 올들어 최고기온을 보였다.

또 大邱35·2 江陵34·7 安東32·9 晋州32·3 蔚山31·2 光州30·5 서울26·8도등으로 전국이 거의30도를 넘었다.

중앙기상대는 1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수그러들것같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 이날 발표한 6월의 기상망을 통해 장마는 하순께 제주와남해지방에 상륙한다고 밝히고 6월의 기온은 예년에비해 다소높겠다고 내다봤다.

◇메 모

▲4일=권농의 날▲6일=망종·현충일▲22일=하지 ▲25일=6·25사변일

◇무더위에 KO…여름 낮잠 주말부터 기승을 부린 무더위로 밖에서 활동을하는 시민들은 탈진상태. 그늘속에차를 댄 기사가 차문을 모두 열어놓고 여름낮잠을 자고있다.【31日하오 서울뚝섬에서】

공기·물汚染 規制강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月末공고 내년단속

환경청은 31일현재 아황산가스(환경기준0·05PPM)만 규제해오던 대기환경기준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옥시던트, 부유분진등 5개항목을 추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천등의 수질환경기준도 용도와 수역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대기, 수질등 오염의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청은 이를위해 개정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6월말공고,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환경기준추가설정에따라 신규제작 자동차의엔진을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작업을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가정용연료를연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작업도 촉진키로했다.

金佐鎭장군 동상 洪城郡서 제막식

【洪城】白冶 金佐鎭 장군동상제막식이 31일 상오11시 충남洪城郡 洪城邑古岩里 가로공원에서 金장군기념사업 회장 崔昌圭씨(국회의원)를 비롯 유흥수충남지사, 김상길 광복회장등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80년1월 착공된 金장군의 동상은 총공사비 1억8백만원 (도비 4천만원·군비 3천1백만원·주민성금 3천7백만원)을 들여 높이 5·3m 가로 3·3m 무게 5·5톤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다. 좌대는 높이 4·6m 가로4·5m 길이 16m로 좌대옆에는 무궁화상이, 양측면에는 靑山里작전도및 비룡기상이 조각됐고 뒷면에는 金장군의 공적이 새겨져 있다.

梁俊模씨·黃石淵씨 中共機납치범 변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梁俊模、黃石淵 두 변호사는 31일 卓長仁등 중공민항여객기 납치범6명에 대한 변호인선임계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두변호사는『30일하오城東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납치범6명을 면회, 변호인선임승낙을받았다』고 밝히고『이번에 사건을 맡게된것은 臺北변호사회의 개인적추천에 응한것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식변호인단은 아니다』고밝혔다. 【聯】

密輸다이어 大量판매 귀금속商주인 영장

【釜山】釜山中部경찰서는 31일 밀수 다이어먼드를대량으로 팔아온 釜山시 釜山鎭區釜田洞 신행빌딩 4층 5백2호 귀금속상 옥보사 주인 박정관씨(30·北區金谷洞985)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에게 밀수다이어먼드 2백5개 (싯가 8천여만원상당)를 공급해준 남현원씨 (40·서울거주)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옥보사 철제금고속에서 팔다남은 다이어3부짜리 14개 2부짜리 11개등 57개 (싯가2천여만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따르면 박씨는 지난6월초순께 수배중인 남씨로부터 밀수경로를 알수없는 다이어 6부짜리 5개, 3부짜리 48개, 2부짜리 50개등 모두 2백5개를 구입, 자기점포에서 특수세공한후 백금및 금반지에 끼워 팔아왔다는 것. 【聯】

外貨밀반출 기도 출판사代表 구속

서울 江西경찰서는 31일 日韓도서출판대표 徐福煥씨(58·서울鍾路區堅志洞110)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徐씨는 지난27일 하오1시께 미화 3만3천7백달러와 일화 34만엔을 여행용가방속에 숨겨갖고 출국하려다 金浦공항 출국검사대에서 세관원에 의해 적발됐었다.

경찰조사결과 徐씨는 지난해초부터 南大門시장 암달러상으로부터 조금씩 외화를 환전해온것으로 밝혀졌는데 徐씨는 캐나다에서 열릴예정인 로터리클럽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차 출국하던길이었다.

軍服·軍用장구류 일반인所持 단속

7월부터

오는7월1일부터 일반인의 군복착용이나 군용장비의 시중유출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31일 단속에앞서 6월한달간을 계몽및 자진반납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히고 군복이나 군용장구류를 갖고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나 헌병대에 자진반납토록 요망했다.

표주박

카바레서 男子유혹 金品털기에 재미

○…서울 永登浦경찰서는 31일 李貞子씨(39·여·仁川南區桃花洞26)李光子씨(34·여·仁川南區朱安洞)등 2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가정주부들인 이들은 지난4월25일 하오11시께 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5街 K카바레에 들어가 술에 취한 손님白모씨(37·건축업)와 李모씨(34·〃)등 2명에게『함께 춤을추자』고 접근, 1시간가량 춤을 춘뒤『하룻밤을 같이 지내자』며 인근Y여관으로 유인, 바카스에 수면제를 타먹여 白씨등이 잠들자 옷을뒤져 현금 88만원을 훔쳐달아났다는것.

이들은 지난30일 하오10시께에도 또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기위해 이카바레에 나타났다가 白씨등의 신고를받고 손님을 가장,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새 소리」

陽洞 協心會사무실主人 李永吉씨

"盲人들에 自立의꿈 심는 차임벨"

도심의 빈민가인 서울역앞 陽洞비탈길부근의 한초라한 사무실에선 하루종일 새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빌딩가 귀퉁이에붙은 5평 남짓한 사무실이지만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때마다 웃음소리와함께 새소리차임벨이 울려퍼지는것이다.

이 방은 李永吉씨(45·사진)가 이끄는 맹인들의 친목단체인 協心會사무실. 사무실이래야 책상하나 덩그러니 놓여있고 후줄근한 차림의 맹인들이 지치고 있지만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다.

陽洞비탈길에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한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앞못보는 답답함과 맹인들의비애를 절감한 李씨가 동료끼리 모여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자는뜻에서 맹인들을 모아 協心會를조직했다. 안마사로, 거리의 악사로 또는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맹인들은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써버리는게 생리.

李씨는「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이들을 설득, 저축의 길로 이끌었다. 처음엔 마땅치않은 표정을 짓던 사람들도 李씨의 열성에 감복, 저축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회원47명의예금액이 5백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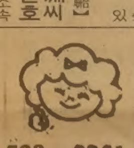
李씨는 9살때 홍역을앓다 빛을잃었다. 73년까지 光州에서 안마사로 입에풀칠을하다 서울벌이를 동경, 상경했으나 고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항상 사회의 동정에만 의지할수없다는 생각에서 協心會를만들어 자립의 터전을 닦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엔 어려움도많았다. 은행에선 동전만 들고오는 맹인들을 반기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한 저축열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지금은 協心을 해주고 있다.또 방송통신대 白모양(27)등 30명은 요일별로 협심회에나와장부정리와 빨래도해준다.

맹인들은 매일 그전날 번 동전을 가슴에 품고 陽洞비탈길을 오른다. 앞도 못보는데다 비탈길이라 힘들기만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 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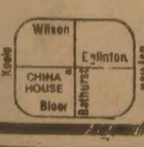
『저희들이 자립해 농장이라도 마련하면 그곳에선 진짜 새소리가 화음을 이룰것입니다』 【薛熙瀧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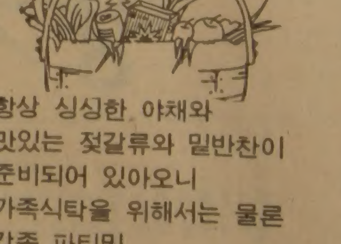
533-236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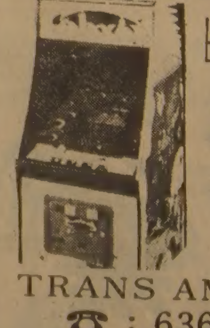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636-0906

이민변호사
LARON PAUL HOPKINS
B.A., LL.B.,
BARRISTER & SOLICITOR
IMMIGRATION LAW
834 YONGE STREET
SUITE 200
TORONTO, ONTARIO
M4W 2H1
(416) 923-7965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247-7161

페미리·닥터
개 업 안 내
DR.C. ANEKE M.D.
영업시간·월~토 오전9시~오후7시
301 SILVERSTONE DR.SUITE 205
MARTINGROVE SHOPPING CENTER
(NORTH OF ALBION, REXDALE)
☎ 745-9700

宋連植 百10m허들 한국新

電子계시 14초60…작년 자신기록 14초64 更新

成樂群 百m 10초42 國內대회 가장빨라

種別육상

서울운동장에서 가장 빠른선수가 탄생했다.

31일 서울운동장서 막을 올린 제12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남일반1백m에서 東亞大4학년인 成樂群은 전자계시로 10초42를 마크, 국내에서 수립된 전자계시기록으로는 가장 빠른기록을 수립, 1백m 1인자가 되었다.

종전 1백m 전자계시에 의한 한국기록은 徐末九(부산은행)가 79년 멕시코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수립한 10초34인데 成의기록은 서울운동장 트랙에서 수립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서울운동장트랙에서의 최고기록은 지난해 세계주니어대회서 美國의 모랄레스가 세운 10초47이다.

成은 지난 4월 열린 시즌오픈기록회에서도 라이벌 張在根(성균관대)을 누르고 우승한바있어 국내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등장했다.

이날 宋連植(성균관대3년)은 1백10m허들 전자와 수동계시에서 모두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宋은 전자계시서 14초60을 마크, 작년 이대회에서 자신이 수립한 14초64를 단축했으며 수동계시서는 14초4를 기록, 81년에 세운 자신의 한국기록 14초6을 경신했다.

이날 여일반1백m에서 朴明姬(서울대) 田貞植(한국체대) 朴美善(한국체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한국기록을 깨는데 실패했고 3명 모두 대회신기록에 그쳤다.

여일반 1천5백m 한국기록 보유자인 金順花(고려대)도 4분33초4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는데 그쳤고 여자높이뛰기 1인자인 金希宣(이화여대)은 한국신기록(1m82)에 도전했으나 실패, 1m79로 대회신기록만을 세웠다.

남고 높이뛰기에서 申伊植(서울체고)은 2m06으로 대회신기록을세워 유망주로 떠올랐다.

첫날경기에서는 한국신기록1개, 대회신기록18개, 대회타이기록1개가 나왔다.

공기총사격대회 대회新 셋

제3회 전국 공기총 사격대회 최종일경기에서 대회신기록 3개와 대회타이기록 1개가 수립됐다.

남자 주니어 공기소총에서 朴熙大(경북체고)와 兪東浩(대전대신고)는 나란히 3백79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나 차이 센터수에서 앞서 우승했다.

崔琅植(경희대)도 3백76점으로 남자주니어 공기권총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 1위를 차지했다.

◇최종일기록(31일·태릉사격장)

▲남자주니어공기소총=①박희대(경북체고) 379 ②유동호(대전대신고) 379(이상 센터수차)·이상 대회신(종전377) ③박동은(대전대신고) 376 ▲동여자=박정아(기업은) 384·대회타이②이상녀(춘성여고) 380 ③송은경(한국은) 378 ▲남자주니어공기권총=①최은식(경희대) 376·대회신(종전375) ②강소흡(경희대) 368 ③김열근(한국체대) 367

세계青少年대회

3日개막

현지成人팀에 快勝 "한국팀은 注目받고있다"

유럽最強 스코틀랜드와 한組 "게임마다 最善"

【멕시코시티=安奉煥특파원】제4회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가 한국을비롯, 6개지역예선을 통과한 팀과 주최국 멕시코등 1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3일상오(이하 한국시간) 예선A조 멕시코-濠洲경기를 스타트로하여 20일까지 멕시코 7개도시에서 18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세계대회 8강진출을 노리고 있는 한국선수단은 지난18일 멕시코에도착, 예선1차전이 벌어질 토루카(해발 2천6백65m)에서 고지적응 훈련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주최국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스코틀랜드와 함께 예선 A조에 편성되어 4일 상오6시 유럽의 강호 스코틀랜드와 토루카 예선 첫경기를 갖게되며 6일 상오3시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와 9일 상오7시에 토루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각각 대결하게 되어 예선돌파가 힘겨운 실정이다.

참가팀은 10일까지 4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벌이며 각조상위2팀이 결선에 올라 12일부터 16일까지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 19일에 3·4위전, 20일에 결승전을 갖게된다.

따라서 한국은 예선A조에서 최소한 2위를 차지해야만 결선(8강)에 오른다.

한국이 예선 1차전서 맞서는 스코틀랜드는 유럽지역예선에서 폴란드와 체코를 물리치고 우승한 강호여서 벅찬상대이며, 지역예선을 거치지않고 자동출전한 멕시코는 홈그라운드의 잇점을 무시할수 없고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은 30일 토루카 성인팀과의 연습경기서 4-1로 완승, 이경기를 관전한 국제축구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고위관계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지난 濠洲세계대회서 이탈리아를 물리친 파란을일으켰던 한국은 이번대회서주목을 받고 있는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79년 제2회대회(東京)와 81년 濠洲제3회 대회에 출전하여 예선탈락, 이번이 세번째 세계도전이다.

이 대회에는 1963년8월1일이후 출생한 선수가 참가하며 각팀은 18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李鍾煥 감독은 『한게임 한게임이 결승이나 다름이 없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브라질이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예선돌파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코카콜라컵

◇세계청소년대회 역대전적

회	장소	우승	준우승	비교
1	튀니지	소련	멕시코	한국불참
2	일본	아르헨티나	소련	한국예선탈락
3	호주	서독	카타르	한국예선탈락

◇예선조 편성

▲A조=한국, 멕시코, 스코틀랜드, 호주
▲B조=폴란드, 아이보리코스트, 우루과이, 미국
▲C조=중공, 아르헨티나, 체코, 오스트레일리아
▲D조=소련,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브라질

國內서 멕시코서 축구 2大 이벤트

슈퍼리그 붐을 타고 축구 빅이벤트가 6월4일 서울과 멕시코에서 동시에 펼쳐진다。제13회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와 멕시코제4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한국은 대통령배 대회서 "우승을, 세계청소년대회서 8강진출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워낙 강한 상대와맞서게되어 상당한 시련이 예상되고있다。 대회 출전팀의 면모와 경기방법등을 살펴본다。【편집자註】

미리가본 그라운드

大統領盃국제대회

4일개막

和아인트호벤·伊제노아·油公 프로名譽건 一戰

「검은별가나등 阿洲3國·태국·뉴질랜드代表도

6월의 구연(球宴) 제13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가 4일 하오3시30분 서울운동장서 한국대표-이탈리아(제노아)간의 개막전으로 막이 오른다.

10개국 11개팀이 출전한 이대회는 4일부터13일까지 서울·水原·大邱·釜山·全州등지를 순회하며 A·B 2개조 예선전을 벌인후 각조상위 2개팀이 15일 서울운동장서 준결승전을 벌이며 17일 3、4위전과 결승전을 갖고 폐막된다.

예선조 편성은 A조에 한국대표 이탈리아(제노아)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B조에 한국프로(油公) 네덜란드(PSV아인트호벤) 가나 수단으로 짜여졌다.

관심의 촛점은 우승팀의 向方이다. 한국은 지난12차례의 대회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단독우승 또는 공동우승을차지했으나 이번 대회서는 우승을 낙관할수없는 입장에있다.

외국출전팀의 컬러는 역대대회사상 가장 알차고 다채롭다는 평이다。네덜란드 1부리그의 아인트호벤과 이탈리아 1부리그의 제노아팀이 출전하고、82년 스페인 월드컵대회에서 「검은돌풍」을 몰고왔던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여 나이지리아 가나 수단등 3개팀이 참가한다. 또한 내년 LA올림픽에 대비하여 강훈중인 미국을비롯하여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도 1陣으로 편성됐다고 축구협회가 밝히고 있어 예선초반부터 격전이 예상되고있다.

趙潤玉 李世淵 코칭스태프를 정점으로한 한국대표팀은 우승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최근 장신FW崔淳鎬를 보강하는등 전력강화에 피치를 올리고 있으나 공격진이 완전정비 되지않은 상태에서 覇權에도전하고있다.

할렐루야를 제치고 대회출전권을 획득한 油公은 홈그라운드의 프로팀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정상에도전, 슈퍼리그붐을 이대회에까지 끌고갈 야망을태우고있다.

許丁茂가 활약중인 아인트호벤은 1913년 창설된 명문으로 과거7번1부리그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지난해시즌서는 1부리그 2위를마크했다. 78년에는 UEFA컵을 차지, 명성을 날렸다. 주전선수 대부분이 국가대표급인데 주전선수들이 모두 한국에온다면 우승후보로손색이없다。

이탈리아 1부리그 8~10위권을 맴돌고 있는 제노아는 유벤투스、AC밀란과같은 클럽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있으나 82년 스페인 월드컵을제패한 이탈리아 축구수준으로미루어 과소평가 할수없는 팀이다. 대표선수인 젠틸레가 이팀의 간판선수.

대통령배대회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는 아프리카 3국은 파란을 몰고올 복병구실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82년 아프리카 선수권을 차지한 가나는 일명 블랙스타(검은 별)로 불리고있으며 청소년 체육부장관이 팀을 이끌고내한한다. 나이지리아 수단축구도 70년대에 접어들어 수준이 크게향상되었다。

【閔炳宅기자】

◇대통령배

◇대통령배대회 결승전적

회	우승	준우승	전적	비고
1	☆한국·버마		0-0	
2	버마	인니	3-1	한국3위
3	☆버마·크메르			한국3위
4	한국	인니	7-1	
5	한국	버마	1-0	
6	☆한국·브라질		0-0	
7	브라질	한국	1-0	
8	한국A	美코스모스	6-2	한국B 3위
9	브라질	한국	2-1	
10	한국A	인니	2-0	
11	☆한국·아르헨		2-2	
12	한국·브라질		0-0	

<☆표는 공동우승>

張吉山 <1755>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5)

黃晳暎 作 崔然石 畵

『글쎄요. 큰 비가 오려나』

『큰 비는 아니우. 대개 비가 많이 오려면 처음에는 한줄금씩 가랑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바람이 서남에서 불어오고 검은 구름이 몇뭉치 떼처럼 연이어 몰려오면 비록 개인곳이 보인다 하나 연일 장마가 들지요. 보아하니 한 이삼일 소나기가 좋이 내리겠는 걸.』

여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저 진위뢰(震爲雷)라 하였으니 우뢰소리가 요란하면 앓은 급하나 뒤가 없으니 비는 많지 않을 것이다. 후두둑 후두둑 굵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거세어졌다. 갑자기 누런 허공에 흰빛이 번쩍하더니 하늘을 찢는듯한 뇌성이 들렸다. 채소를 담은 소쿠리를 옆에 낀 원향과 계화가 허둥지둥 칠성암으로 뛰어 들었다.

『아이고 무서워. 아무 죄두 없는데 이렇게 간이 뒤흔들리니, 죄 많은 사람 천벌이 무서워 어찌 살꼬?』

계화가 처마 밑으로 들어서며 호들갑을 떨었다. 원향이는 소쿠리를 부엌에 들여놓고 마루에 걸터앉았다. 천둥 번개가 이리저리 마치 작대기가 삼아 꽂히듯이 꿈틀거리며 하늘을 찢었고, 그 속에서 몇가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하늘은 금방 뽀얗게 되었으며 소요산과 감악산은 하늘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빗소리는 꽃바퀴 안에 왕모래가 들어 왈가닥거리는듯 요란해졌으며 사방에서 물 흘러가고 떨어지고 부딪치는 소리가 폭포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뇌성벽력은 더욱 심해졌다. 지축을 흔들며 폭음이 들릴적마다 계화는 애그머니 소리를 연발하더니 드디어 방안으로 뛰쳐 들어갔다.

『이 사람, 번개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라구. 뭐가 무서워. 헌데 요즘 비는 별루 안좋을텐데. 나락이 다 익어 가는데』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졌다. 여환은 법당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얼핏 좋지않은 느낌이 들었다. 저것이 혹시 정말 개벽의 조짐인가. 그는 이번에는 뚜렷한 근심을 가지고 비 오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소나기에 불과하지만 지금 민심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저 하늘을 천변의 조짐으로 믿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여환을 깨우쳐 주려는 것처럼 요란한 벼락 소리와 함께 맞은편 산허리의 나무가 꺾여져 나가고 있었다. 비는 바람에 실려서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몰아쳐 내리기 시작했고, 김승훈은 괭이를 들고 나가 토담밖에 긴 고랑을 팠다.

비는 그칠없이 내렸다. 밤에 나란히 누워 있는 원향과 여환의 귓가에도 우뢰 소리가 들려왔고 초가지붕을 따라 흘러 떨어지는 빗소리 때문에 그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열 사흘 남에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아직도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천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월초부터 끊임이 없더니 드디어 뇌성벽력이 요란한 밤을 뜬눈으로 새우자마자 백성들은 서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다시 소문에 소문을 덧붙이게 되었다.

땅끝에서 오다 <71>

金成一 作

이세원, 그는 분명히 작년 9월 말 경에 서울대학병원에 온적이 있었다. 그리고 신동현에게 다리의통증에 관해서 이야기 하며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말했다는 것이다. 신동현은 이 세원의 증상에 관하여 과장에게 자세히 리포트 하였고, 드디어 이 세원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복잡하고 면밀한 검사를 거쳐 이 세원의 증상에 대하여 내려진 검사결과는 골수암이었다.

이미 이 세원의 혈액은 백혈병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이런류의 악성종양은 다른 부위의 암세포로부터 전이(轉移)되어 오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신동현은 그에게 수술을 권하였었다고 했다. 우선 급한대로 앓의 발생부위를, 그러니까 왼쪽 다리를절단하는 것이었다.

이세원은 좀더 생각해보고 오겠다며 가더니 그후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신동현의 차분한 설명을들으면서 준호는 또한번 그의가슴이 충격으로 떨려오는것을 느꼈다.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도 생각나지 않을정도였다.

그는 자꾸만 신동현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마…지금쯤은 이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저 문 영실에게 도움 받아야 할일이 있으면 임준호를 찾으라고 한것이었던가. 영원한 2등인 임준호에게 이번에는 그 아내까지도 떠 맡기려 했단 말인가. 그러나 저 이상한 텔렉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내를 물려주는 의식의 주문(呪文)인가.

또 한번 그의가슴속에는 회의(懷疑)의물결이 높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고아였다. 고아 이세원은 오직 그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왔다. 다른것은 몰라도, 그의 짐속에 남겨진 단 한권의 책…그 낡은 가죽뚜껑의 바이블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색연필과 볼펜으로 수 없이 줄을 쳐서 이젠 아주 너덜거리는 책장들. 그 책이 바로 이 세원이 살아온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되어 준호는 또 얼마나 흥분했었던가. 어느 누가 이 세원만큼 진심으로 바이블을 읽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예수는 병자들을 고쳤다고 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원은 암에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도, 예수도 암에는 어쩔수 없다는 것인가)

형언할 수 없는 분통함이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부르짖듯이 외치고 있었다.

『세원이는 죽어선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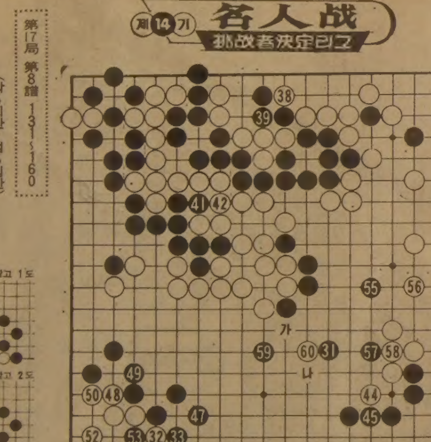
그가 죽어버리면 타도의 목표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내버린 여자를 치사하게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싸워서 이기고 뺏어야 했다. 준호는 마치 세원의 죽음이 자가 죽음이라도 되는 듯이 안달을 하고 있었다.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이 녀석을 찾아야 한다!』

제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17局 第8譜 131~160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 <2勝2敗>
黑(6段) 張秀英 <4勝0敗>



白、마지막 승부수

黑이 31로서 승세를 굳히자 白은 빈사상태인 왼쪽 아랫귀에서 32이하 36의 패로 버텼으나 「억지같은 수단」이라고 한다. 이뒤 37자리패를 따내지말고 참고1도 1이하 5의 패를 했더라면 白은 당할 도리가 없어서 그것으로 항복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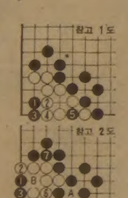
白52、54로 완생이다. 참고2도의 黑1로 치중해도 黑7때 白「A」와 4의 곳을 맞보아 무사하다. 黑7을 4자리에 잇고 귀곡4궁을 만들어도 白「A」를 선수하고 白「B」로따내면 黑3에 파호했자 白4、黑5때 白1로 짓눌러 살아버린다.

어쨌거나 白귀는 수가있었던곳인데 아무리 승리가결정적이라도 무조건 살려준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중론이다.

그런데 실상 張6단은 따로계획한 바가있었다. 黑55、57을 선수하고 59가 호착. 다음 白「가」를 예상하고 그때 黑「나」정도로 후퇴해도 하변을 고스란히 장악한다는 계산이다.

白도 이젠 白60으로 붙여 최후의 승부를 피할밖에 없다.이리하여 국면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게 된다.

40、43、46、51…패。【一凡】



참고1도 참고2도

SUNNYSIDE SUPERMARKET

〈한국식품점이 또하나 생겼읍니다.〉

양지식품

〈인 사 말 씀〉

여러분께서 자주 다니시는 양지바른 길목에 새로운 한국식품점을 마련했읍니다.
한국식품및 기타 동양식품을 고루 갖추고 친절과 성의로써 여러분의 식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오는 6월10일(금) 개업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단한 리셉션을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대·안경애 올림

1738 LAWRENCE AVE. E.
(at 빅토리아·팍)
☎759-9331

입맛을 돋구는 고향의 싱싱한 맛은 역시 양지식품에서!

개업일 : 6월10일(금)

전국에 3천2백16개
모든 中高生 野外수련
青少年대책위 邑·面·洞까지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청소년문제에 대비, 청소년대책기구가 전국邑,面,洞단위에까지 확대 설치된다。정부는30일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현재 市,道및 대도시의 區단위에만 있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전국 3천2백16개邑,面,洞단위에 「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를 두기로했다。

문교부에 의하면 청소년지도기능을 지역 실정에맞춰 효과있게 펴나가기위해 전국 邑·面·洞에둘 위원회의 구성원은 지역의관계공무원과 교사등으로 5명, 청소년 관련단체대표5명, 학부모와 지역인사 10명등 20명으로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읍·면·동장이맡게된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한지역단위 대책수립▲공공시설의 청소년 이용화추진▲기타 지역 사회여건에맞는청소년 선도대책등이다。

문교부는 현재 이를위해 청소년대책위원회규정을개정중에 있는데 청소년대책기구의 전국확대방안은 청소년문제를 가정과학교의 범주에서 탈피, 범사회화시키는 첫번째조치로 주목된다。

한편 문교부는 청소년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야영장 수련원 자연학습원등 전국의 1백41개시설을 올해부터 연중무휴로 개방, 교외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1박2일의 수련과정을 갖도록 제도화하며 이같은 활동을 수업의 일환으로 준교과과정화하기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안은 이밖에도 금년부터 소년범선도보호제를 확대, 선도를 조건으로 소년범6천명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조치하고 불우청소년들을 위해 경기驪州, 충남錦山, 전남長城등 3곳에 시범소년원을설치, 이들에게 정신교육과영농기술교육을 가르친다。

또 가두직업소년을 경찰서단위로 리스트를 작성, 평소 이들의 보호관리를철저히하고 전국82개의 새마을청소년직업학교 2만2천5백2명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교육여건을 개선토록하며 이를위해 8천만원의 예산을 보조키로했다。【李鍾九기자】

日에 또 强震
北海道 동해안에

【東京UPI=聯】1백명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를낸 강력한 지진이 일본 북부 동해안지역을 휩쓴지 5일만인 30일새벽 5시54분(현지시간) 다시 리히터 지진계로 강도 5·8을기록한 지진이 일본북부 훗까이도(北海道) 도까지역을 강타했다고 일본기상청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지진으로인한 피해여부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있으나 쓰나미의 내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진앙지가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도까지군에서 70㎞ 떨어진 해저라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全國이 30도圈
5월의 여름

◇2개월앞서 찾아온 복더위를 피해 본격적인 여름옷차림인 시민들은 그늘을 찾아 더위를 식혔다。 우리나라는 29일에이어 30일에도전국이 30도를 웃도는 기온분포。 江陵지방은 34·4도로 올들어 최고를기록했다。【30일하오 서울奬忠공원에서=韓隆기자찍음】

江陵 이틀째 34도
「짜증休日」… 6명溺死

5월에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있다。

30일 江陵지방은 낮최고기온이 휴일인 29일의 34도에이어 올들어 가장 무더운 34·4도까지 치솟아 여름무더위가 무려 2개월이나 앞당긴 듯한 이상고온현상을 보였다。

29일에이어 계속된 무더위는 수도주를春川31, 大田30·6, 서울29·9도까지 올려전국이 30도를 웃돌았다。

중앙기상대는 이상고온이 닥친것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때문이라고 설명,3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낮최고25도~30도로 약간수그러 지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휴일의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등 6명이 익사했다。

▲23일하오5시께 江陵시洪濟洞 도립강릉병원앞 남대천에서 수영중이던 박세훈군(12·江陵남산국교6년)이 수영미숙으로 2m깊이의 물에빠져숨졌다。

▲하오3시10분께충북 堤原郡 寒水面 西倉里앞 남한강상류에서 가족과 함께 놀이왔던 김연배씨(37·서울西大門區北阿峴2洞1, 7 2의5)의아들 범두군(9·북성국교3년)이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하오4시께 堤原郡清風面校里앞 남한강상류에서 정일훈씨(50·제천기관차 사무소소속검수원)가 같은 직장에 있는친구와 올뱅이를 건지다가 수심3m의 강물에 빠져 숨졌다。

▲하오1시45분께는강원春城郡 新東面 甑1里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춘천공고 1년 박태식군(17)이 깊이 2·5m의 물에 빠져 숨졌다。

▲하오 2시30분께 강원旌善郡旌善邑鳳陽8里 봉양교옆 조양강 상류에서 수영을 하던 봉양국교2년 전영일군(9)이 깊이 1·7m의 물에빠져 숨졌다。

"國力생산하는 政治를"
國運의 絶頂期꽃피울 使命感 깊이새겨야"
全斗煥 民正총재, 中央委치사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30일『우리는 지금 국민의 底力이 가장 힘차게 약동하는 國運의 絶頂期를 맞이해 민족역량을활짝 꽃피워 나가야할 크나큰 사명을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한층 깊이새겨야한다』고 말하고『그동안 우리의 政治史에 훌륭한전통을 쌓아온 民正黨의 빛나는 底力이야말로 이시대적 사명을 기필코 완수해낼수 있는 가장믿음직스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서울江東區可樂洞 중앙정치연수원에서 創黨후 처음으로열린 民正黨중앙위원회에 참석, 致辭를통해 이같이 밝히고『民正黨 당원여러분은 국민모두가 내일에 대한 굳건한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인 선진조국창조를위해전진해 나가도록 앞장서 이끌어야할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으며 民正黨은 이 거대한 役事를 한층 북돋우고 加速化하는 강력한 牽引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黨의 힘으로 당원이 큰는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힘으로 黨이 커지는 소망스러운 전통은 民正黨이 이룬 매우 값진 성과이며 이와함께 대결과 특권이아닌 화합과 봉사의 기풍여서 부단한 自己改革의 자세와 더불어 民正黨이 더욱 알차게 키워나가야할 특선』이라고 지적하고『이러한 훌륭한 전통의 기반위에 근대적인 公黨의 면모를확립해 국민앞에 다짐한 政治先進化를 꾸준히 추구하고 국민을위한 정치와 國力을 생산하는 정치를 튼튼하게 정착시켜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民正、創黨후 첫 中央委전체회의
"國民신뢰획득 總力결의"
議長에 王相殷의원

民正黨은 30일하오 서울可樂洞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黨職者및 중앙위원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創黨후 첫 中央委전체회의를열고 중앙위의장에 王相殷의원을 만장일치로 다시 선출하고 부의장에 朴潤鍾·李建鎬·朴泰俊·李範俊·黃寅性·具龍鉉·洪鍾旭·李潤子의원등 8명을 뽑았다。

이날中央委는 ▲깨끗한 정치풍토조성과 자립정당구현에 앞장서고 代議기구의 활동을 적극화, 政黨선진화의 중추적역군이 되며 ▲民意에 바탕을둔 정책을 폭넓게개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넓히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3개항의 決議文을 채택했다。

어제새벽 試錐
대륙붕 제4鑛口

油開公과 美자펙스사가 공동개발하는 대륙붕 제4광구에서의 석유시추작업이 30일새벽2시30분 착수됐다。우리대륙붕에서 열번째로 시도되는 이번 시추작업은 당초 6월로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과정이 순조로와 예정보다 앞당겨 이날 해저시추작업에 들어갔다。

대륙 1개공시추작업은 보통 20~45일정도 걸리므로 이번 시추결과는 6월말이나 7월중순 이후에나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西方7國頂上「安保」성명
美蘇 軍縮회담 실패할땐
유럽에 신형核 配置

【윌리엄즈버그(美버지니아주)=李文熙특파원】미버지니아주윌리엄즈버그에서열리고 있는 제9차서방선진공업국경제정상회담에 참석중인 7개국 지도자들은 29일 2차공식회담에서 美-蘇유러미사일 감축회담이 실패할 경우 금년말부터 유럽에 신형 美製미사일 배치계획을 강행한다는당초의결정을지지했다。

이날 2차회담에서 프랑스와 캐나다가 美製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채택에 반대함으로써 회담이 장애에 부닥쳤으나 결국 상호이견을 극복, 유럽배치 핵무기감축을 위한 군축의제와 서방진영의 공동방위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 보유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이날 2차정상회담이 끝난후 미제중거리미사일의 유럽배치 계획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7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7개국 지도자들은 이성명에서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서방진영의 결속을확인하는 한편으로 7개국은 세계의 군비감축을위해 소련과 협력할준비가 되어있다고밝혔다。

오늘 3黨總務회담
임시國會소집 논의

民正 民韓 국민당등 3黨총무들은 31일 회담을갖고 제1백17회 임시국회소집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본회의 대정부질문日程과 議題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나 각당의 의견이 엇갈려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西方7國의 수뇌들 제19차 西方선진국경제정상회담에참석한각국수뇌들이 29일 윌리엄즈버그의 하우스·오브·버지스에서 타원형탁자에 둘러앉아 회의를 진행하고있다。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나까소네日本수상、란다니이탈리아수상、대처英國首相、레이건美대통령、트뤼도캐나다수상、카스톤·토른EC(歐共體)의장、콜西獨수상、미테랑프랑스대통령。【윌리엄즈 버그29日AP전송=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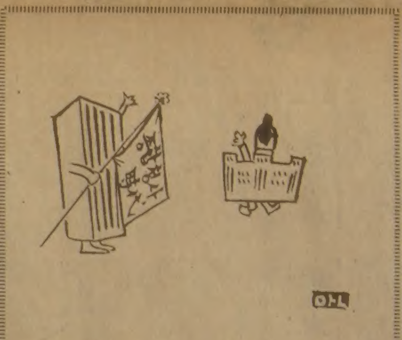
볼리비아下院議長
오늘下午 來韓

볼리비아의 사무엘·가야르도로자다 下院의장 부처가 31일하오 蔡汶植국회의장초청으로 來韓한다。

☎ 533-2361

한국일보 Toronto THE KOREA TIMES
광고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어비스
한국일보 533-2361

社會漫評


"난 가오./앞으로 뭔가 좀 달라 지슈…."

地平線

백제땅에 있는 거대한 못과 동양최대규모의 절은 아마도 3국시대에 신화적인 존재였던것같다。삼국사기는 碧骨池를 신라16대 흘해왕21년에 쌓기시작했다고 쓰고있다。둑의 길이만 5리가 넘는 백제땅 金堤의 거대한 저수지를 엉뚱하게 신라가 만든것으로 써놓은것이다。이때는 지금으로부터 1천6백50여년전이었다。▼또 삼국유사는 동양최대인 미륵사를 신라왕실의 공주인 武王妃의발원으로 지었다고 쓰고있다。이두 거대한 구조물은 억지로라도 신라와 관련시켜야할만큼 당대엔 경이로운 모뉴먼트였을 것이다。3국시대문화의 총결산이라고 할수있는 석굴암이나 불국사도 사실은 백제문화의유산이라고 할수있을것같다。지난4월 井邑에서 발견된 백제때 돌부처는 석굴암의 부처를 닮았다는 얘기다。▼세계帝國 唐의 압도적인 군사력앞에 고구려가 망하자 그 遺民들이 渤海라는 큰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워 알고있다。마찬가지로 고대일본은 백제遺民들이 세운나라라고 할수있다。佐平 余自信등 벼슬을 받은 백제귀족만 7백명이나 됐다。吏部에 해당하는 法官大輔、문교장관격 국립대학총장격인 學職頭등이 이름난 사람이다。▼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보다 큰나라였다。망할때 호수가 백제는 76만호였고、고구려는 69만호였다한다。그러나 이제 그 영광의 기록은 까마득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다만 몇가지 유적으로 그것을 짐작할 뿐이다。그중의 하나로 한강유역에 남아있는 돌무지 무덤이 있다。고구려의 무덤처럼 돌을 피라미드형으로 쌓아 올린 무덤이다。▼백제초기의 돌무지 무덤은 역사기록과 마찬가지로 무참히 파괴돼서 겨우 4기만이 형체를 남기고 있다。석촌동의 3호분은 고구려 광개토왕능비로 유명한 장군총과 맞먹는 규모였다。높이는 그 절반규모지만 밑바다 길이는 30m로 장군총보다 약간 크다。그것이 지금 길을 넓히는 불도저에 밀리고있다 한다。문명사회에 있을수없는「깜짝 놀랄 일」이 아닐수없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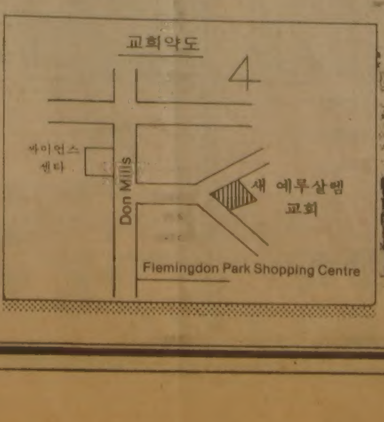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부흥성회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갱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PAOC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5

散策하던 西獨 콜首相 10分간 늦게 會議場에

——西方 7개國 정상회담 落穗

8명이 회의참석

○…제9차 경제정상회담의 첫회의는 일요일인 29일 상오9시(현지시간) 식민지 버지니아州의회였던 하우스·오브·버제스에서, 레이건대통령의 희망대로 7개국頂上과 EEC 의장을 포함한 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3시간을 50여분이나 넘기면서 진행됐다.

頂上들은 모두가 딴방에 진을친 통역들과 연결된 이어폰을낀채 회의를 진행했는데 말문을 연것은 물론 이번 회의의 사회자格인 레이건대통령, 오른쪽에 영국의 대처수상, 왼편에 캐나다의 트뤼도수상을 번갈아보며 특유의 조크로 회담을 시작했다.

1차회의 4시간

○…근4시간여의 1차회의를 마친뒤 美관계자는 이날분위기는 시종 부드럽고 진지했으며 레이건대통령은 사회자로서도 능숙했다고 전했으나 이번회의에서 가장불만이많은 나라로 지목되고있는 프랑스측 보도본부관계자는 美재정적자문제를 다룰때 분위기는 매우 냉랭했었다고 말해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일요아침 예배도

○…29일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정상들은 윌리엄즈버그 最古의 교회라는 브루턴교회에서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을 제외한 6명의 정상들이 레이건의안내로 일요예배를 보기도 했다.

하오엔 軍縮회의

○…상오 회의가 主題에 충실한 경제회담이었다면 하오2시께부터 외상과 재무상들을 배석시킨가운데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린 하오회의는 군축회의의 인상을 줄만큼 미국의 對蘇군축협상자세에서부터 소련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못하는한 오는 12월로 예정된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의 유럽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레이건으로서는 그의 對蘇협상에 단결된지지를얻었다.

레이건 實力과시…「對蘇문제」엔 一致

참가국엔 衛星중계도

○…이날 레이건 대통령은 軍縮등 정치의제는 식사때에만 거론할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미사일과 軍縮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날 하오회의에이어 프레스센터에 각국 외상과 함께나온 슐츠美국무장관은 이문제가 첫날인 28일저녁 식사에서 논의됐던 것이며 정상들의 요구에 따라 발표문을 냈다고 말하고 7개항의 평화추구와 군축자세및 유럽미사일 문제에대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날 슐츠장관의 브리핑은 하오 1시15분으로 예정돼있었으나 발표문에 수록할 내용에 대한 일부 이견을 조정하느라 무려 5시간이나 늦게발표되었다.

완벽한 報道시설

○…윌리엄 앤드 메리 大學체육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는 폐쇄회로 TV, 전화, 텔렉스중계 카메라등 각종시설이 거의 완벽할만큼 준비되어있고 백악관, 국무성, 美해외공보처(USIA) 직원등이 총동원되다시피하여 보도업무를 돕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상이 참석한 각국은 따로 보도본부를 마련하고 회의가 끝날때 마다 자국기자들을 위해 따로 브리핑을 해주었다. 대표가없는 나라들은 대개 미국 브리핑장에서 회의결과를 듣기도 했다.

대거 특파된 각국기자들을 위해 프레스센터에는 해당국의 TV를 모두 위성중계 해놓고 있어 프레스센터안의 TV채널을 돌리면 영국·프랑스·일본등지의 방송을 아무때나 시청할수있다. 따라서 각국기자들은 자신들이 위성중계한 뉴스를 잠시후 프레스 센터에 앉아 그대로 모니터할수있을뿐 아니라 같은 회의에 대한 다른나라의 논평과 분석을 즉시 들을수 있었다. 각 TV앞에는 모니터를 하는 각국 기자들이 모여들어있었다.

○…정상들은 30일 상오9시부터(한국시간하오) 정오까지 또한번 회의를가지며 여기서는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 특히 東西 교역문제등에 대한 마무리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하오3시 레이건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프레스센터에나와 공동발표문을 공동발표하면서 회담을 끝내게된다.

그러나 정상들은 회의를 마무리하는 만찬을할 예정인데 선거가 임박한 영국의 대처수상만은 만찬에 참석지않고 먼저떠날 예정이다.

그밖의 정상들은 31일 9시부터 차례로 랭그리공군기지를 통해 귀국한다.

대처엔 딴노래로

○…이보다 앞서 정상회담이 개막된 28일 각국수뇌들에게는 미국인들에게 민족적 별명을붙여준「양키·두들」이라는 환영곡이 연주됐으나 유일하게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에 대해서는 영국 해군군가가 연주됐다고.

각국수뇌들이 회담장인 윌리엄즈버그의 총독관저에 도착할때마다 19발의 禮砲와함께 양키·두들이 울려퍼졌는데 이노래는 영국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미국혁명을 주제로 한 것이어서 대처수상에게만은 의전상의 실수를피하기위해 이노래를 연주하지 않았다는것.

메뉴豊盛 美食성찬

○…이번 회담은 서방선진국정상회담이라는공식명칭외에 『美食이 물리도록 제공된 회담』이라는 별칭이 붙을듯.

西方경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망라한 무거운 議題에대한 합의점을 발견할수있을지의 여부는 가늠하기가 너무 이르나 정상들의 식사메뉴에만은 쉽게 의견이 수렴된듯하다.

29일 오찬메뉴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푸른게와알래스카의 왕게, 버지니아産 굴과 햄, 롱아일랜드의 조개, 메인産새우, 연어연기구이, 치킨·프라이등 盛餐이 차려졌고.

걸어서 會談場에

○…산보를 즐기는 헬무트·콜西獨수상은 29일 열린첫공식회의에10분이나지각해서화제가됐다.

레이건대통령과 다른 5개국정상들이 회담장에 승용차를타고온 반면 콜수상은 숙소와 회담장까지의 거리가가까와 걸어온것이 이날 지각의 이유였다고.

【윌리엄즈버그=李文熙특파원】

◇레이건、대처 영접
레이건美대통령이 서방경제정상회담참석을위해 윌리엄즈버그에 도착한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을 마중하고있다。【윌리엄즈버그28日 AP聯合】

物價는 정말 안정되고 있는가…

피부에 닿는 景氣는…

물가가 놀라울정도의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것으로 계속 발표되자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부분적으로 다시나오고있는것같다. 집값이 한두달 사이에 수백、수천만원씩 오르고있는 판국에 한 자리수 물가가 무슨의미가 있느냐는것이다. 또 시장에나가보면 물건값이 지난해보다 다비싼데정부가 발표하는것을보면 1년전에비해 오히려 물가가 내렸다니 잘믿기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기동향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다. 정부는 5월을 고비로 우리경제가 호황기에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렇지않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부분적으로 과열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 회복이 덜 됐다는 주장이다.

통계숫자를 감각적으로 풀이한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숫자와 감각이 반드시 일치할수는 없기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나 물가동향을 숫자로밖에 파악할수가 없다. 그렇게해야만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한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나 기업은 감각으로 그것을 파악하게된다. 지난해보다 생활비가 더들면 주부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한다. 작년 보다 장사가 잘되면 기업가들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게된다. 정부는 이같은 주부들의 생각이나 기업가의 느낌을 일일이 따질수가없다. 국민전체의 생각과 느낌을 하나의 평균으로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기때문이다. 정부의 생각과 느낌은 국민전체의것과 일치해야하는 것이므로 부득불전국 평균숫자에 의존하지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 전국 평균치에 해당하는 생각과 느낌을 갖고있지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정부 발표 숫자에 대해 감각적으로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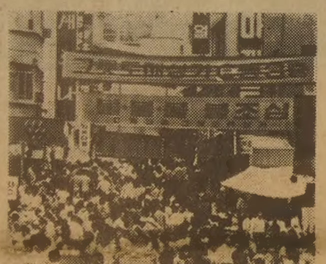
물가의 경우 특히 이같은 괴리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부값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서울에서 大邱로 내려가면 두부값은 그날로 당장37·6%가 오른다. 서울은 두부 한모에 1백9원(4월평균시세)인데 大邱서는 1백50원이다. 41원이나 비싸다. 그나마 大邱의 두부값은 지난 1년동안 전연 오르지 않은 것이고 서울은 12·8%나 오른 것이다. 서울과 大邱사람들은 두부를 통해 느끼는 물가감각이 서로 다를수 밖에 없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들쭉날쭉이다.

全州는 두부 한 모에 1백54원, 仁川은 1백33원이다. 淸州에서는 두부 값이 1년동안 25%나 올랐는데 光州에서는 오히려 7·7%가 내렸다.

두부만 그런것이 아니라 무우 배추 콩나물 달걀 멸치 김등 대부분의 농수산식품류가 다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산품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가정용 연탄(22공탄) 한 장에 서울은 1백56원인데 釜山은 1백67원. 칠성사이다는 大邱가 한 병에 2백원인데 春川은 2백39원이다. 10%20%차이가 나는것은 예사고 어떤 곳은 내렸는데 다른데서는 올라 뒤죽박죽이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값이 내렸는지 올랐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주부들은 연탄 한 장, 두부 한모에 따라 각각물가를 느끼게되지만 정부는 숫자로 전국 평균을 내는 수 밖에 없다.

물가 사이에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견디다못해 해명자료(국회제출)를 만든것이 있다. 이 자료는 공식적인 물가와 감각물가 사이에 최고 80%까지 (극단적인 경우를 가상 했을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백94개의 소비자물가조사대상품목중에서 연탄 쇠고기 콩나물 고등어 꽁치 등 12개의 일용생필품만 평균85%가 오르고 나머지 3백82개 품목은 전연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12개 일용품만 사쓰는 주부들의 감각물가는 85%가 오른데 반해 ▲전국 소비자물가는 6·9%밖에 오르지 않아 80%에 가까운 괴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감각물가가 전국평균으로 나타나는 지수물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3백94개 물가조사대상품목에 주택이 빠져있다는점이다. 먹고 입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집인데 집값 오르는 것이 지수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상당한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



◇物價…시장에가면 實感이 난다
경기동향, 물가에 관한 정부발표숫자는 전국 평균치여서 언제나 국민각자의 實感과는 거리가 생긴다.

地域따라 物價差 80%까지

일부에선 "景氣회복 덜됐다"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숫자역시 물가와 사정이 똑같다. 지금 경기가 침체·안정·호황·과열 중 어느국면에 와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경기예고지표(WI)만하더라도 18개의 개별적인 지표들을 통합해서 평균점수를 내고 그 점수로 경기동향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 지표는 3·0이 만점으로 ▲0에서 1·0까지가 침체 ▲1·0~1·5가 하향성 안정 ▲1·5~2·0이 상향성 안정 ▲2·0~3·0이 과열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니까 4월중 1·5를 기록한것은 국내경기가 호황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18개 개별지표중 나빠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다. 그러나 점수는 어디까지나 평균으로 나타난다. 업종별 기복에 따라 아직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데서는 경기감각이 좋을리가 없다. 자동차업계가 사상최고의 호황을 누리고있다는것도 딴세상얘기처럼 들릴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주택경기와 고급술집등 사치성업소를 중심으로 경기가 흥청대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해서 평균점수가 호황으로 나오는것을 다르게 발표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가지수와 경기지표,실업통계는 물론이고 금리와 환율,임금등에대해서도 실세와 실상을 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 의구심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들 통계중에는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도 없지않다.

가령 실업통계같은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른바 非求職실업자도 그중 일부는 실업자수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정부도 실업통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비자물가는 월세 전세의 움직임을 좀 더 큰비중으로 반영하고 집값도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지표 역시 가동률이라든지 취업자수,근로시간처럼 생산활동에 직접관련있는 지표들을 더 보강하고 통화·금융의 비중을 줄여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경제의 실상을 있는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기위해 각종 지표와 통계가 좀더 민감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체에 대한 오해나 불신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朴武기자】

메아리

5월 有情

모진 4월이 더디게 느껴진 탓일까, 세월의 아쉬움을 제쳐두고 5월을 기다렸다. 계절의 여왕이란 수식이 호들갑스럽게 들린다. 5월은 나긋나긋 하면서도 힘이 넘친다.

가정의 달、청소년의 달이 알맞게 제자리를 잡고 반겼다. 어린이 날의 천진과 활기가 성년의 날로、다시 그 의젓함이 어버이 날로 이어 졌다. 교육주간과 함께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謝恩의 정을 새겨 두었다.

차례 차례 다친 날들이 이름만으로도 고맙고 흐뭇했다. 이 5월이 이제 마지막 하루를 접어 간다. 떠들썩 했던 행사의 여운도、카네이션의 내음도 잦아 들었다. 그러면서 「5월의沈潛」은 많은 후회와 미결의 숙제를 남겼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어버이 스승 사이는 인간을 지배하는 人倫과 은혜의 관계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변한다 해도 이관계만은 끊을 수 없다. 아름다운 날들을 정해、평범한 하루에 액센트를 주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5월의 기도에 얼룩이 남았다. 얼룩의 퍼레이드를 묶은 신문에서 읽는다. 잊혀져 가는 악몽을 굳이 되새겨 보려는 짓궂음이 아니다. 이 사회의 건강度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어린이 날을 하루 앞두고 『가정불화 잇단 새싹희생』이란 신문제목이 우리눈을 아프게 때렸다. 과거는 省察의 거울이다. 거울에 비친 자화상을 다시보자.

『또 한가족 毒殺미수극』
『10代가 술주정 아버지殺害』
『敎師 폭행한 학생 拘束』
『엄마가 3남매 살해、빚지고 가정불화 잦아』
『잇단 동반自殺母情』
『고교생 5명이 몰매 중학생 숨져 둘 검거』

대충 날짜에따라 추려본것이다. 당국의 대응책도 칼날처럼 날카로와 졌다. 학교주변의 폭력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상습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한다고 경고를 내렸다. 잇달아 돈 받는 교사는 엄단하겠다고 나섰다.

5월이 슬퍼졌다.

부분만을 보고 전부로 확대시키는 해석은 설득력이 적다. 이사회엔 밝은면이 더많다. 그렇지만 한구석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면 치유력을찾고 길러가야할것이다. 아직은 뚜렷한 접근방법조차 안보이는것 같다.

먼저 떠오르는것이 환경의 정서다. 우리생활 주변은 직선이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다. 부드러운 곡선이 드물다. 직선이 힘이라면 곡선은 정서라고 생각해본다. 활은 직선과 곡선의 결합으로 만든다. 휘어질듯 하는 곡선의 조화가 받쳐줘야 직선의힘이 팽팽하게 화살을 쏘아댄다. 韓屋의 우아감도 비슷하다. 쭉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오솔길이 그리운것도 마찬가지 이치다.

우리는 「아는것이 힘」이란 직선적 교육에 젖어 왔다. 학교나 가정이나 다를바 없다. 지식교육만 다그치다 보니 「지식의 美學」엔 미처 눈돌릴 여유가 안생긴다.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다. 미국 초급학교 숙제는 우리처럼 교과서를 밀어내듯 외는 암기형이 아니다. 가령 나비에 관한 과제를 주면、2~3권의 책을 쭉 읽고 그 개요를 적게 한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색깔이 담긴 나비그림을 곁들여야 합격점을 받는다. 생물학의 지식과 미학의 조화가 돋보인다.

우리 환경은 직선과 곡선의 균형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것이 정서의 상실과 불안에 연결된다. 시의 분위기、음악의 조화감이 모자란다. 정서가 메마른 지식은 거칠어 지기 쉽다.

「비 개인 5월 아침
혼란스런 꾀꼬리 소리
찬엄한 햇살이 퍼져 오릅니다」

「이 아침 새빛에 하늘대는
어린 속잎을 저리 부드러웁고」

풋풋한 金永郎의 시 한 귀절을 읽고 5월을 보낸 청소년과 어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이제부터라도 「정서의 환경」을 다듬고 가꿔 나가야 할것이다.

「정서가 순화된 우리 내일이、창궐하는 범죄와 부조리의 세상일을 견디기에 한결 낫지 않을까…」하는 시인의 「日曜日 아침에」목소리는 그래서 목메이게 정겹다.

劉榮鍾 【編輯委員】

記者의 눈

관광名所…議事堂

요즈음 汝矣島국회의사당에는 의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않는다. 대신 전국각지에서 관광차방문하는 주민들로 많이 붐비고있다. 그만큼 「名所」라는 얘기가된다.

지난75년9월1일부터 문을연 여의도 의사당을 지금까지 관광목적으로 찾은 방문객수는 총1백60만명.

관광의 발길이 가장많았던 78년에는 42만명이나 몰렸고 가장 적었던 76년과 81년에는 8만여명을 기록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4만7천여명이 의사당을 구경했다.

의사당을 둘러보고간 많은 유권자들은 저마다 건물의 웅장함에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과연 「民意의 殿堂」이란 의미를 깊이 새겨본사람이 얼마나될까.

물론 관광객중에는 對정부 질문광경등을 직접 보고간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가 열리기까지 갖가지 복잡한 과정이 숨어있다는것을 아는사람은 그리많지 않을 것같다.

지난4월에 합의한 6월 국회를 열기위해 與野는 지금 陣痛속에 줄다리기협상을 하고있다. 의사당안의 복잡한 迷路처럼, 어려운 크로스워드 퍼즐처럼 얽히고설킨 與野의 관계를 헤치며 소집을 모색하고있는 것이다.

與野모두 약속이나 한듯 『국회는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日程잡기가 힘겨운 느낌이다.

혹시 협상이어려워 6월국회를 열지못한채 그냥 넘어갈 염려는없는지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현상황으로는 與野간 異見조정을 하지못해 국회가 열리지못하는 사태는 일어날것같지는않다.

정치의 광장、정치의 무대가 응당 다뤄야할國政심의를 게을리할경우 의사당은 구경온 유권자들이 감탄하는 건물이외의 것이 될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이든다.

한마디로 주인없는 빈집이요 관광의 名所이상의 의미를 찾을수 없을 것이라는것이다.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있던 과거국회는「通法府」「행정부의 시녀」라는 異名으로 지칭됐고 의원들은「아기보는 사람」으로 격하비유됐으며 그러다가 軌를 이탈하는 불행한 憲政史를 남겼음을 기억하고있다.

이 사회에서 흔치않은 공개적 가치판단의 場이 국회라고 생각하는 기자는좀더「外」에상부한「實」을갖는 先進議會란 어떤 것인가 自問하곤 한다.

선진의회란 대화와토론, 이른바 정치가 막힘이없이 물흐르듯이 이뤄지는수준을 말함이 아닐까. 【金永煥정치부기자】

비데오 게임 머신

가게를 경영하시며 비데오게임 머쉰을 소유하신분들께 회소식을 알립니다.

본사에서는 종전의 5할제에서, 6할제로 이익을 여러분께 드리며 가장 이윤이 높고 인기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겠읍니다.

□즉시 수리
□새 기계 (NEW MODEL), 항상 보유

6할의 이익

☎924－5597
대표 박 용

춘계 연세 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춘계 연세 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가를 바랍니다.

□장　소 : 리치몬드힐 골프클럽
□시　일 : 1983년 6월4일(토) 오전 9시30분
□참가비 : $35(디너및 그린피포함)
□연락처 : 이　갑(445－6704)
성수용(292－6430)
문영환(923－3846)
□마　감 : 6월2일

연세 동문회

고교대항 배구대회

일　　시 : 1983년6월18일(토) 오전9시~오후8시
장　　소 : Boyd Conservation Park (HY 7N & Islington)
회　　비 : 팀당60불(주장회의시)
주장회의 : 6월10일(금) 오후7시 코리아하우스
연 락 처 : 신동호(부회장) ☎298－8573
송수언(주장) ☎367－0682

주최 : 경복고등학교동창회
회장 이영현
후원 : 배구협회

새한칼라 확장이전

인사말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1일부터 아래주소로 이전확장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인덕 올림

이전일 : 6 월1일
새주소 644 BLOOR ST. W.
(신용조합 건너편)
전화 535-7772

반달곰 쏜 無法者 왜 못잡나

허술한 警察수사… 단서도 없이 8일째

첫목격자潛跡… 現地에만 맡겨

◇本社가 촬영했던 智異山 반달곰 지난79년1월 본사기자가 촬영에 성공한 智異山의 반달곰。이 천진스런 눈망울의 반달곰은 지금 멸종설이 나돌고 있다。그러나 반달곰을 쏜자는 오리무중이다。

雪嶽山 반달곰을 쏜 무법자는 아직도 꽁꽁숨어있다。웅담을 얻기위해 멸종설까지 나도는 귀한 반달곰의목숨을 끊은 「몰염치범」을 잡아 일벌백계의경종을 내려야 하지만 경찰수사는 8일째 겉돌고만있으며 단서조차 얻지못한형편이다。

당초주민의 간접적인 제보에따라 빈사상태의 반달곰을 구조하러 나섰던 강원도 束草경찰서는 곰이죽자 수사전담반을 구성、범인을 일단 밀렵꾼으로보고 이에대한 탐문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체수사인력 6명에 束草시·麟蹄군등 인근시군의 산림보호직원 6명을 보강、모두 12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첫목격자조차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곰이 독극물을 먹은뒤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위해 쓸개3g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했으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총을 맞고 숨졌다는 사실만 확인했을뿐이다。

그러나 상처가부패해 탄환의 크기와 납·화약 검출조사에는 실패했고 현장검증에서도 탄피나 탄환을찾아내지못해 총기의 종류는 알아내지 못했다。

죽은 곰은 10년생 암컷이었으나 아직 한번도 수태한일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수컷이 없다는 방증이어서 지금까지 알려진것과는 달리 雪嶽山일대에서 반달곰이 멸종한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을 낳고있다。

경찰은 束草 襄陽 麟蹄등 雪嶽山과 인접지역에 광범한 탐문수사를 펴고있고 밀렵꾼과 연결、야생동물을 사들이는 서울등 도시지역의 한약방 박제상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펴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렵기간이지나 엽총을 경찰에 영치해두어야하는 기간에 총을 들고다닌 범인은 전문적인 밀렵꾼이거나 특수한 처분루트를 갖고있는 지능범으로 보아진다。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총기를 휴대한점으로 보아 범인들은 단순한 밀렵꾼으로 보기어렵고 주민이 살지않는 깊은 산에서 이루어진만큼 인근주민이라기 보다 인근주민의 안내로 현지사정에 밝은 외지인 특히 대도시에 처분루트를 갖고있는 자일 가능성이크다。그렇다면 수사는 처음부터 광역공조수사 체제를 갖추었어야 했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이사건을 관할지인 束草경찰서에만 일임해버렸다。

치안본부의 수사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관할지에서 전담수사해왔을뿐 전국적인 범죄조직이나 전과자 밀매루트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않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겨울 충남大德郡甲川에서 황새를 독살한 사건이 지금껏 미제로남아있는것을 비롯、보호종이나 희귀 동물이 밀렵당하는 사건이 해결되지않고 흐지부지되는것도 바로 이같은 미온적인 수사체제 때문이다。

평소 적극적인수사로 밀렵우범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수시로 동태를 감시하며 밀매루트등에대한 지역간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즉각대응이 용이했을것이다。

현재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문화재관리국、산림청、경찰이 모두단속권이있다。

이번 반달곰의경우 국립공원지역에서 죽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천연기념물)과 자연공원법、조수보호법등의 저촉을 받고、총기를 사용했기때문에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에도 저촉된다。

이처럼 관련 단속법규가 많고 단속기관도많지만 밀렵이 끊이지않고 단속도미진한것은 결국 그동안 밀렵꾼수사가 허술했다는 결론밖에 내릴수없다。

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먼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로 자연파괴범을 응징하는 경찰의 입무가 더 시급하다。【裵琪哲기자】

電子오락기구 製造도 관리법대상品目 포함

최근 시중에 범람하고있는 전자오락기구의 제조판매가 앞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

30일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금까지아무규제근거가없던 전자오락기구의 안전도와 품질을 규제하기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의 규제대상에 전자오락기구를 포함시키고 사전 형식승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규제대상품목이되면▲제조시설에 일정한 기준을마련、이를 갖춘후▲시·도지사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제품의 품질과 안전도에 대해서도 미리 형식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현재 전자오락기구제조는 방치상태에있어 무허가업자들이 소음을내고 조잡한 영상및 색상을가진 조잡제품을만들어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해독을 끼치는 사례가 너무많은것으로 지적돼왔다。

外來語·어려운漢字 우리말로

문교부서 고친다

문교부는 30일 외래어와 일본어、어려운 한자어등 6천8백여단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 학교교육용과 행정기관용어로 사용키로 했다。

이 새로운 말은 77년이후 5년동안 총무처등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인의 의뢰를받아 국어심의회 국어순화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가▲반드시 바꾼 말을 써야하는것▲동시에 쓰는것▲되도록 바꾼말을쓰도록 하는것등으로 분류、단행본으로 만들어져 이날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배포됐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말로 바꿔써야하는 말중에는▲가가호호→집집마다 ▲감방→수용실 ▲견본→본보기 ▲결석계→결석 신고 ▲과채류→열매·채소 ▲노스탤지어→향수 ▲불철주야→밤낮없이▲사이비→가짜▲수렵→사냥▲여분→나머지▲이하동문→다음과같음▲스마일→미소등이있다。

大入체력장、오래달리기 追加

불참자0點처리 1년 미뤄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대입체력검사 불참자에 0점처리 방침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문교부와 체육부는 30일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대신올해부터오래달리기한종목을추가키로확정지었다。

이들 관계자는 결시생에 대한 0점처리방침은 준비기간을 두기위해 1년연기된것이고 86아시안 게임、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모든 경기의 기초가되는 오래 달리기의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오래달리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입 재수생의 체력검사는 84학년도 입시까지는 재학중의 점수를 인정하되 85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입학지원당해연도에 다시 수검토록 했다。

成大生 9명拘束

집회·시위법違反

서울東大門경찰서는 30일 成均館大생 서민원군(22·기독학생회부회장) 등 9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지난25일과 26일 2차례에걸쳐 교내 교수회관과 경상대건물등에서 반정부 내용이 담긴 유인물2백여장을 뿌리고 교내시위를 선동한 혐의다。구속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다。

▲서민원(22·기독학생부회장) ▲한근철(23·정외과4년) ▲목영대(20·독문과3년) ▲이화영(20·사회심리학과3년) ▲나한훈(21·구미문학반회장) ▲전성호(21) ▲손정진(22) ▲최동(23) ▲서범석(29)

池學淳주교 入院

천주교 原州교구 池學淳주교가 30일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로 서울江南성모병원에 입원했다。

池주교는 지난 28일부터 충북提原郡 베론성지에서 휴양중 29일하오 9시30분께 『몸이 불편하다』고 말해 原州기독병원에 옮겼는데 혈당이 오르고 온 몸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자 30일새벽 1시30분께 서울로 급히 이송됐다。

5行뉴스

◆원호처、수업료補助확대 원호처는 30일 현재20년이상의장기복무 전역하사관중 생계곤란자의 자녀들에만 지급하는 중고생 수업료국고보조 혜택을 앞으로 장교자녀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열차에 치여 30대 숨져 【浦項】29일 하오 11시52분께 浦項시 上大洞 浦項역 1km지점 상행선 철도위에 누워있던 권홍대씨(35·浦項시 上大洞 76)가 기관차에 치여숨졌다。【聯】

"환자기피는 紛爭부담탓"

過剩진료 현상까지 빚기도

開業醫 실태조사서 드러나

우리나라 일반 병·의원 개업의사들은 응급·중환자가 찾아올경우 진료능력·시설미비등의 이유보다 의료분쟁이 빚어질게 두려워 환자들을 시설이좋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기피행위를 하는것으로 밝혀졌다。또 평소진료업무중 절대수가 의료분쟁의 부담감을 갖고있어 과잉진료、방어진료등의 부적정진료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대한의학협회공제회가 전국개업의 2천6백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업의사 의료분쟁관련 의식조사」에 의하면 이들중 50.8%인 1천3백64명이 「만일의 사고로있을 의료분쟁을우려、응급·중환자를 다른의료기관으로 보낸다」고 응답、진료능력·시설미비등의이유(1천1백89명 44.3%)를 앞지르고있으며 절대수인 93.5%가 평소 의료분쟁의 정신적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로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반수에가까운 1천2백65명(47.1%)으로 지난81년의 66.1%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 됐다。

따라서 의학협회는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협공제회를 구성、분쟁발생 때의 심사보상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4월중순까지 1건도 심사청구가 접수된 일이 없을만큼 의료분쟁은 제도나 법령에 의하지않고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머니·두子女음독

【榮州】30일새벽2시30분께 경북榮州市榮州4洞5통3반 2토지15블록 權섭택씨(35)집 내실에서 權씨의 부인金태숙씨(28)와 장녀 윤선양(7) 장남 제원군(5) 등 3명이 염산을 마시고 신음중인것을 남편 權씨가 발견、병원으로 옮겼으나 부인 金씨는 숨지고 두자녀는 중태다。

金씨는 82년 9월 본처와 합의 이혼한 權씨와 지난 2월 중매결혼 했었는데 최근 본처가 자주 찾아와 가정 불화로 부부 싸움이 잦았다。

경찰은 장남 제원군의 앞이빨이 뿌러져 있는점등으로 보아 계모인 김씨가 두자녀에게 망치등으로 위협 강제로 염산을 먹이고 자신도 음독한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聯】

億臺 금괴密輸 적발

냉동선船主가 總責… 10명拘束

釜山地檢

【釜山】부산지검 특수부 金東柱검사는 30일 금괴밀수조직의 총책인 부산신양해운소속 냉동운반선 55드래곤호(90톤) 선주朱在仁씨(30·釜山中區寶水洞1街24) 갑판장金洪吉씨(44) 제2·3·2남해호선주 金順基씨(50)등 10명을 특가법 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괴공급책인 재일동포 조동파씨(50·일본 시모노세끼 남산상회주인) 등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로부터 금괴 7.059kg (시가9천만원)과 일제 올림프스 카메라 79개등 1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朱씨는 지난24일 일화 1천2백50만엔을 갖고 드래곤호로 일본시모노세끼 항에 가 수배중인 재일동포 조동파씨가 경영하는 남산상회에서 금괴 8.7kg (시가 4천2백만원)과 카메라 78대등 시가 7천만원어치를 구입 했으며 드래곤호의 갑판장 金洪吉씨도 같은 방법으로 금괴 4kg (시가 4천7백만원)을 구입하는등 6명의 선원들과 짜고 금괴7.78kg과 카메라등 1억1천7백여만원어치를 55 드래곤호의기름탱크밑 가로20cm 세로30cm의 비밀실에 숨겨 지난29일하오 부산에 입항했다 적발된것이다。

검찰은 드래곤호의 선주朱씨가 지난82년 11월23일 이배를 인수한후 냉동수산물 운반은 뒷전으로하고 지난 25일까지 4회에걸쳐 11.53kg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밀수했다고 자백했지만 이들의수법으로보아 밀수한 금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속수사중이다。【聯】

교사가 弟子덥쳐

가정방문갔다가 野山끌고가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30일 서울九老區 開峰洞O여중3년 수학교사 李成帝씨(30)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씨는지난달 30일 하오4시께 자신이 담임을 맡고있는 이학교3년 尹모양(14)집에 가정방문을 갔다가 尹양의 어머니 金모씨(42)로 부터 술대접을 받고 하오7시께 돌아오는길에 배웅나온 尹양을 九老區梧柳2洞 야산으로데려가 강제로욕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교위는 지난10일자로 李씨를 직위해제했다。

두어린이溺死

工場옆 웅덩이에

【蔚山】30일 상오8시 蔚山市呂川洞28의3 전용주씨(45)의 아들 순포군(7)과 배만학씨(37·蔚山市梅岩洞551)의 아들 선철군(9·梅岩국교 2년)이 呂川洞 울산정유공장옆에있는 깊이 2m 직경 5m의 웅덩이에 빠져 숨져있는것을 梅岩洞362에 사는 차용식씨(21)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聯】

회사幹部 몸수색에 항의

또 버스안내양 集團탈출

釜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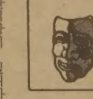
【釜山】버스 안내양들이 회사간부들의 몸수색에 항의、기숙사를 집단 탈출해 출근길의 시민들이 큰불편을 겪고있다。

30일 새벽2시30분께 釜山海雲臺區佑1洞602일광여객소속 시내버스 안내양40명이 간부들의 몸수색에 항의、기숙사를 뛰쳐나갔다。

이날 소동은 버스안내양 張모양(18)이 29일밤11시30분께 회사 전무 李상은씨에 의해 몸수색을 당한끝에 삥땅한 2천5백원의 돈이 적발되어 인근海雲臺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연행되자 안내양들이 이에 항의하여일어났다。【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安全제일



道路교통안전協 강사 田元春씨

「교통사고王國」에 스스로 "罪人"

한국은 「교통사고의왕국」이다(본보5월26일자 1면)。자그마치 하루평균 17명이 죽고 3백58명이 부상당한다。사고원인은 93%가 운전자의 법규위반。

서울시경찰국 도로교통안전협회강사 田元春씨(60·사진)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것이 자기탓인듯 죄인을 자처한다。운전자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잘못해 사고왕국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 했다고 느끼는 모양이다。

田씨는 해방후 경찰에 투신、鍾路경찰서 보안계장이 될때까지 18년간 봉직했다。제복을 벗은후 잠시 사업을 했으나 경찰근무시절의 경험을 살려 자동차 교육강단에 서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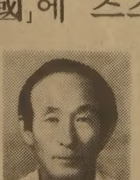
전국에 田씨같은 강사가 50여명있으나 田씨가 가장 널리 알려져있다。81년에 열린 제1회 전자교육전국경연대회에서 1등한 관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드럽게 흐느끼듯 호소하다가도 목청을 높여 호되게 꾸짖는듯하는 田씨의 교육솜씨는 누가 보아도 압권이다。

그는 운전자의 정신자세를 제일 강조한다。누구나 교통법규는 잘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것은 주인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나무란다。

『지금 당신이 몰고가는 차앞을 당신의 가족이 건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과속을 할수없을 것입니다』사뭇 신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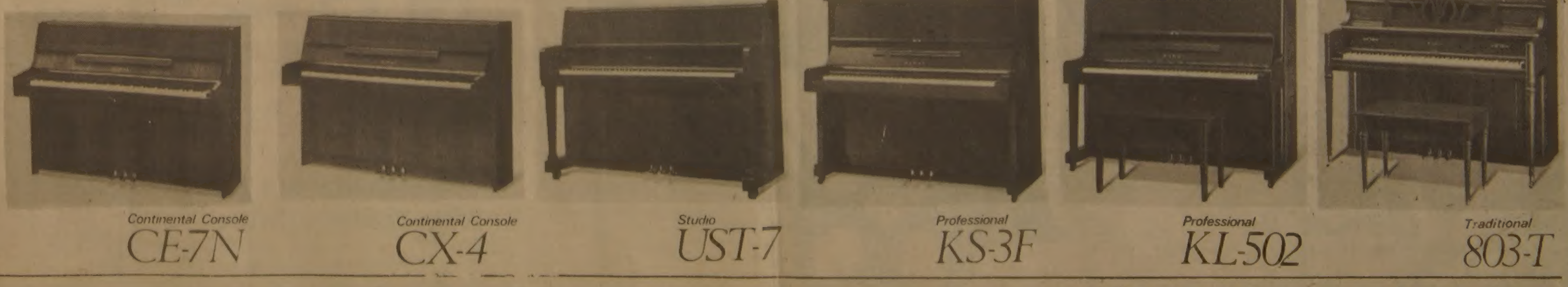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많은듯하다。술병은 핸들의 천적인데도 너무 「자주 잊는다」고 충고한다。



田씨는 하루평균 1백60분간강의하고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수시로 불려다닌다。이를위해 꾸준히공부한다。강의를 지리하게 하지않기위해 유머를 생각해내고 신문에 난 교통관계기사는 전부 스크랩한다。

『빨리 달리면 운전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어린아이라도 액셀러레이터를 세게밟으면 차는 무섭게 달립니다。그러니 운전을 잘하는게 뭘까요。안전하게 운전할줄아는 지혜라 이겁니다』【韓基奉기자】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영원한強者 없다"…뜻밖의 羅慶民시대로

「朴鍾八 KO신화」 KO로 깨뜨려

지난 4년간 국내중량급 간판선수로 군림해왔던 朴鍾八(23)의 침몰은 링의 승부세계에서는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의외의 결과였지만 羅慶民(28)은 29일 朴鍾八을 7회KO로 물리치고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미들급 타이틀을 차지함으로써 羅慶民시대를 열어놓았다。12연속KO승의 그가 언제까지 타이틀을 지킬지、어떤선수에 의해 王座에서 밀려날지 아무도 모른다。

羅慶民은 55년9월16일 충북淸州에서 태어났다。교편을 잡았던 아버지 羅正鳳씨(52·상업)가 春川으로 전근、그곳에서 성장했다。春川은 제2의 고향인 셈이다。

春川農高 1년때 처음 복싱글러브를 끼었다。아마복서로 웰터급、주니어미들급、미들급에서 활약했고 국가대표선수로 각광을 받기도했다。

81년5월16일 프로 첫 데뷔전에서 필리핀의 알만도·보니키트를 1회 2분14초만에 KO시켜 좋은 스타트를 보였으며 그해 9월16일 徐錫과 국내타이틀 결정전을 가져 5회KO승、국내 주니어·미들급 챔피언이 됐다。

스트레이트를 잘치고 파위가 좋으나 스피드가 부족하고 기술이 단조롭다는 평을 받고있다。맺집과 타고난 체력、무엇보다 나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를 권투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있다。

과묵하지만 羅慶民만큼 달변인 선수도 드물다。

2남2녀중 둘째로 17 7㎝。

羅慶民이 OPBF 미들급 21대 챔피언에 오름으로써 한국은 이 체급에서 12년 연속으로 왕좌를 지키고 있다。

주니어미들、미들급등 동양권에서 가장 무거운 이 체급은 부침이 심하다。특히 미들급은 羅까지 21명의 챔피언이 탄생、23명의 새왕자가 나타난 라이트급 다음으로 세대교체가 빠르다。한국 복서가운데 중량급 동양무대를 처음 정복한 선수는 康世哲。

60년 11월20일 주니어미들급 초대챔피언이되어 이듬해 11월13일까지 1년간 타이틀을 지켰다。康의 뒤를 이어 李안사노가 4대 챔피언을 지냈으며 林載根이 7대와 10대를、朱虎가 9대 챔피언이 됐다。79년 4월에 日本의 미하라·다다시가 11대 챔피언에 올랐으며 최근 세계도전문턱에서 좌절한 白仁鐵이 81년12월27일 12대챔피언에 올라 지금까지 동양왕좌를 고수하고있다。

한국복서가 미들급동양타이틀을 차지한것은 주니어미들급보다 5년뒤。金基洙가 65년 1월10일 13대 챔피언이 됐으나 68년11월20일 日本의 미나미·히사요에게 타이틀을 잃었다。

66년6월 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을 차지、한국최초의 세계챔피언이된 金基洙는 69년3월1일 미나미에게서 다시 왕좌를빼앗고 그해 8월5일 타이틀을 반납하고 은퇴했다。

이어 崔成甲과 李今澤이 16·17대 챔피언에 올랐다가 71년 1월6일 李今澤이 캐시어스·나이또에게패배、타이틀벨트는 잠시 日本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柳濟斗가 그해 7월24일 장충체육관서 캐시어스·나이또를 KO로물리치고 챔피언타이틀을탈취、79년까지 8년간 독무대를 이룩해왔다。

柳濟斗는 金基洙에 이어서 WBA주니어미들급 정상을 정복、일본의 와지마·고이찌와 함께 동양중량급의 호프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羅慶民에게 타이틀을 내준 朴鍾八은 柳濟斗、金基洙다음으로 동양무대를 오래지켜온 셈이다。【金仁奎기자】

◇내가 王者다 羅慶民이 朴鍾八을 KO로 물리치고 OPBF미들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한후 글로브를 높이 쳐들어 팬들의 환호에 답하고있다。羅는 이날 승리로 프로데뷔이래 12전12KO승을 기록했다。

東洋미들급 한국서 12년째 왕좌
浮沈심한 중량급鐵拳 21명 明滅

◇미들급 역대동양챔피언

대	이름	기간
1	다쓰미·하찌로	54·3·22~55·4·20
13	金基洙	65·1·10~68·11·20
14	미나미·히사요	68·11·20~69·3·1
15	金基洙	69·3·1~69·8·5
16	崔成甲	69·9·27~70·1·10
17	李今澤	70·1·10~71·1·6
18	캐시어스·나이또	71·1·6~71·1·24
19	柳濟斗	71·7·24~79
20	朴鍾八	79·8·22~83·5·29
21	羅慶民	83·5·29타이틀탈취

◇주니어미들급 역대동양챔피언

대	이름	기간
1	康世哲	60·11·20~61·11·13
4	李안사노	66·3·13~69·5·10
7	林載根	75·2·23~76·11·20
9	朱虎	77·11·12~78·9·1
10	林載根	78·9·2~79·4·26
11	미하라·다다시	79·4·26
12	白仁鐵	81·12·27

◇金基洙

◇康世哲

◇崔成甲

◇柳濟斗

내집서 놓친 우승
한국、泰 기동력에 밀려 3-0

亞洲 학생축구

永登浦工高를 주축으로 한 한국청소년대표팀은 30일 서울운동장서 폐막된제12회 아시아학생 축구대회 최종일 결승전에서 태국에 3-0으로 완패、예상을 뒤엎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태국은 세타샥의 2골(전반11분、후반34분) 챠논트의 추가골(전반30분)로 기동력과 패스웍이 뒤진 한국에 완승했다。

3、4위전에서는 싱가포르가 경기종료 2분을남기고 얻은 페널티킥을 아메드가 성공시켜 홍콩에 1-0으로 이겼다。

지금까지 9골을 넣어 최다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金奉吉은 경기시작 5분께 문전헤딩슛을 터뜨렸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왔고 10분 李基詰의 페널티정면 강슛도 크로스바를 맞고 튀어나와 스타트가 좋지않았다。

기동력과 패스웍이 한국선수보다 우세한 태국은 전반11분 문전혼전중 세타샥이 페널티에리어 박에서 한국수비를 제치고 슛、선제골을 올렸으며 전반30분 챠논트가 두번째 골을 넣었다。

한국은 후반들어 맹반격을 펼쳤으나 패스가 중간에서 전부차단되고 중앙돌파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못해영패했다。

후반17분과26분愈炳祚의 두차례슛도모두빗나갔다。태국은 경기종료 6분을 남기고 세타샥이 다시한골을추가、승리를 굳혔다。

◇최종일 전적 (30일·서울운)

▲결승전

태국 3 (2-0, 1-0) 0 한국

▲3·4위전

싱가포르 1 (0-0, 1-0) 0 홍콩

李俊熙 타이틀 방어
2회 전국씨름 한라장사 崔旭珍도 白頭

【大邱=聯】청룡군백두장사 李俊熙(부산 공동어시장)와 한라장사 崔旭珍(경상대)이 장사 타이틀을 지켰다。

29일 대구체육관에서 폐막된 제2회 장사씨름대회 청룡군 백두장사급 경기서 李俊熙(1m90, 1백15㎏)는 5전전승으로、崔旭珍(경상대)은 천하장사 李萬基가 왼쪽 무릎부상으로 결장한 한라장사급(95㎏이하)에서 4승1패를기록、각각 장사타이틀을 1차방어에 성공했다。

李萬基는 부상으로기권、5패를 기록하여 최하위인 한라장사급 5품으로 떨어졌다。

또한 머리를깎고 재기에 나섰던 洪顯旭(현대중공업)은 백두장사급서 1승4패를기록、재기에 실패했다。

◇최종일전적

◆청룡군백두장사

▲장사=李俊熙(부산공동어시장) 5승▲1품=黃永浩(동아대)4승1패▲2품=柳基成(현대중공업)3승2패 ▲3품=李鳳杰(충남대)2승3패 ▲4품=洪顯旭(현대중공업)1승4패▲5품=崔相一(서울시교위) 5패

◆한라장사

▲장사=崔旭珍(경상대) 4승1패 ▲1품=趙太浩(부산공동어시장) 4승1패(동률재대결) ▲2품=康始厚(부산공동어시장) 3승2패 ▲3품=劉在鉉(경상대) 2승3패▲4품=金光植(현대중공업)2승3패(이상동률재대결) ▲5품=李萬基(경남대) 5패(기권)

◇29일 청룡군 백두급(95·1㎏이상) 경기에서 李俊熙(左)가 라이벌 洪顯旭을 쓰러뜨리고 있다。李는 5전전승으로 白頭장사 타이틀을지켰다。【大邱=聯】

油公、국제축구出戰

창단8개월의 油公이 할렐루야를 2-0으로 꺾어 오는4일 개막되는 제13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출전케 됐다。

두 프로팀의 4차대결에서 油公의 朴潤基는 전반35분 金剛男의 도움으로 헤딩슛을 성공시켜 선제골을 뽑았다。

◇전적 (29일·서울운)

유공 2 (1-0, 1-0) 0 할렐루야

男子 연승 女子 연패
韓·日배구定期戰

83년 韓日배구정기전 최종일경기가 29일 장충체육관에서벌어져 한국남자는 3-0으로 승리했으나 여자는 3-0으로 패배 했다。

한국여자는 日本의 대형 세터 나까다의 재치있는 토스의 방향을 잡지못한데다 아직까지 전력이 안정되지않아 2연패 당했다。

◇최종전

남 한국 3 (15 15 15 / 11 13 13) 0 일본

여 일본 3 (15 15 15 / 12 10 2) 0 한국

鄭求善 방망이 불꽃
주말 연속결승타… 三美선두 加速

프로야구

주말 鄭求善의 불꽃타봉에 힘입어 三美슈퍼스타즈가 쾌조의 4연승으로 21승12패를 기록、전기우승을향해 단독질주하고있다。

29일 홈구장 仁川에서 롯데에 0-2로뒤지던 三美는 5번鄭求善의 7회말 중월동점 2점홈런과 연장 12회말 역전끝내기 안타로 3-2로 승리、다놓친 게임을 되잡았다。

시즌오픈전 시범경기이후 다소 침체했던 鄭求善은 주말 맹렬한 불꽃을 뿜어 2게임에서 연속승리타를 날리는등 지난한주에만 7타점을 몰아쳐 三美연승의 디딤돌이 되었다。

행운아 張明夫는 이날 1·4회초 자책점으로 롯데선발 盧相守에 빼길뻔한 승리를 鄭求善의 도움으로되찾아 금년시즌 최다인 8연승을 기록했다。

三美 우승을 어깨에짊어진 張明夫는 최다출장(18게임) 최다이닝(164·6회) 최다탈삼진(89개) 기록을 늘려가며 14승3패 1세이브를 마크하고있다。

◇29일전적

◆대구

MBC	0	0	0	0	0	0	1	0	1	2
삼성	0	0	1	1	0	0	3	0	×	5

◆대전

해태	2	2	0	0	1	0	2	0	0	7
OB	0	0	0	0	1	1	3	0	0	5

▲홈런=金奉淵(1회2점) 金鍾潤(5회) 金準桓(7회2점·이상 해태)

◆인천

롯데	1	0	0	1	0	0	0	0	0	…0	2
삼미	0	0	0	0	0	0	0	2	…	1	3

▲홈런=鄭求善(8회2점·삼미)

張吉山 <1754>

黃晳暎 作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4)

환회는 검계가 잠행한 뒤로부터 더욱 미륵도에 열을 올렸고 장까지들어서 달군이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시작하였다。고달근은 아직도 대처 전달에 지나지 않았다。달근은 이런 짓이 얼마나 위험하고 쓸데없는 짓인가 생각했으며 환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고 보았다。

『달근이 자네 송후 난전 애들 몰고서 불곡산으루 올거지?』

환회가 물으니 달근이가 재빨리 말하였다。

『하여튼… 자네 그릇되면 삼천리에 몸 담을 곳이 없어지네。안성에 아직도 내동무들이 많이있으니 숨어 지낼만한 골짜기의 암자를 소개해주지。마누라 데리구 그곳으루 가있어。내가 나중에 노을 보낼테니…』

『쓸데없는 수작 말어。오든 게야 안오든 게야?』

고달근이는 환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네가 더 잘알지 않나。내가 어떤 놈인지』

하고는 고달근이가 환회의 팔을 잡더니 콱 잡고 흔들다가 놓았다。

『이 밥쇠 같은 자식』

그들은 철신네집 앞에서 헤어졌다。이정명과 이시흥은 동행이 되어 연천쪽으로 갔고 환회는 집으로 몰아갔으며 정원태는 관가의 삼문 밖으로 갔다。그는 사령에게 전형방과 허예방을 잠깐 불러 달라고 하였다。바로 길 앞은 삼발(麻田)이었다。전시우(田時雨)와 허시만(許時萬)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왔다。그들은 이미 자세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정원태는 그들에게 끝까지 병력을 동원한 궁성 번복에 대하여는 말을 꺼내지 않고서 다만 그믐에 천변이 일어날 조짐이 별 자리에 나타났다고만 이르고 그 때에는 양반과 사대부가 모두 몰살할 것이니、우리같은 중인(中人)들이 행정을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개벽이 일어나면 나와 함께 양주목으로가서 병부관인을 접수하여 민심을 안돈 시키겠나?』

전 허두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안돈 시키다 뿐인가。내쳐서 한양으로 들어가 궁궐 좌정을 하여야지』

『염려말게。우리두 다 경륜이 있다네』

이튿날 칠월 열 이튿、오후 부터 서북에서 짙은 먹구름이 일어나 하늘을 메우기 시작하였다。그것은 그저 여름 그맘때의 폭풍에 지나지 않았다。아직훤한 대낮이었는데도 사방은 어둠컴컴해졌다。먼 하늘속에서 천둥 소리가 징 치듯 울려왔다。번당 안에앉았던 여환은 마루 끝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코 끝에 물기룩가득 머금은 바람결이 부딪쳐 왔다。주위는 누런 빛을 띠었고 나뭇잎들이 발짓발짓 나부끼기 시작하였다。아랫방에 있던 김승운이도 툇마루로 나오며 여환에게 말을 건넸다。

『비가 올 모양이우』

여환은 금방 먼 산머리에서 뭔가 번쩍 하는 빛을 보았고 이어서 천둥 소리가 구름을 헤집고 지나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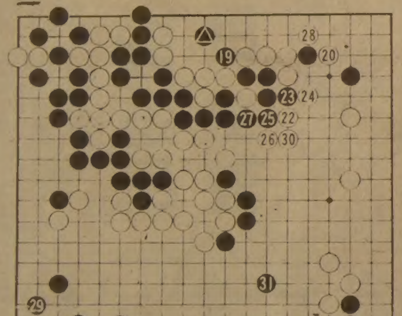
名人戰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7譜 119~137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勳 〈2勝2敗〉

黑(6段) 張秀英 〈4勝0敗〉



실은 좌상귀 패의 댓가로 중앙 일대가 지리멸렬이 되었을때 張6단은 패배를 自認했다고 한다。

白이 상변을 ▲표자리에 가일수하여 살았더라면 그외곽의 黑일단을 또 시급히 보강해야 하니 그때 白이 좌하귀를 21로 뻗어서 쉽게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반대로 黑이 ▲표에서 19로 白을잡고 살았으니 姜5단 자신은 물론 보는이마저 어이가없었다。

더군다나 우상귀도 白20에 끼워 붙인 수만으로는 제압할수 없다。급한대로 白22이하 26을 거쳐 28로 비로소 잡는꼴이 지만 白30도 손을 빼지 못한다。黑29를 당하여 좌하귀가 위험해졌지만 이곳은 승부처로 할 밖에없다。

黑 必勝의 국면

이무렵 姜5단은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숨을 크게 들이마시곤했다。白30에 무려 30분가량 시간을 늘인것도 그때문일게다。

참고로 여기까지를 결산해 보면、白은 우상을 손에 넣기 위하여 20서부터 28、30등 도합 3수를 소비했다。이에대해 黑은 19로 상변白을 끊어잡고 21로 좌하귀를 제압하여 이만저만한 수확이 아니다。말할것도 없이 필승의 태세이다。

게다가 黑31이 또 너무나 좋은 자리。姜5단은 결국 좌하귀에서 白32이하 36으로 패를 걸어본다。이대로라면 도저히 이길수 없다고 비장한 승부를 건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귀추가 궁금하다。【一凡】

땅끝에서 오다 <70>

구미꼬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저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었지만 스미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그 애의 LDK에도 밤새 들어오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어요。지께이의대 부속병원에도 알아보니까 어제 오후 3시쯤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 간에는 LDK라는 주거양식이 유행하고 있었다。일종의 아파트이긴 하지만 몇개의 방을 가진집의 형태가 아니고 거실(Living Room) 식당(Dining Room) 주방(Kitchen)을 함께 겸할 수 있는 방 하나만으로 된 아파트였다。독신자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도 이 LDK를 즐겨 애용하고있었다。주거에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다는 개념의 풍조였다。그것은 어쩌면 뿌리없는 현대 젊은이들의 생활양식이기도 하였다。스미에의 사는 곳도 바로 그러한 LDK식 아파트였던 것이다。

『혹시 고향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알아보세요。고향이 시즈오까(靜岡) 부근이라고만 들었는데、지께이의대병원에 자세히 알아본다면 좋을겁니다。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꼬야마(橫山) 상에게 부탁하세요。그는 스미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읍니다。아시겠지만 난 내일 리비아로 떠납니다。지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후에 지사장이 나왔다。

『어때? 피곤하지?』

많이 부드러워진 지사장의 음성이었다。

『프로젝트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지시를 받게。리비아에 가면 이번 프로젝트에 관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알겠읍니다』

『이세원부장의 이상한텔렉스는 나도 보았는데…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

『네、파리지사에 부탁해서 BELLE 258867이라는 곳을 알아보았더니 프로방스가에 있는 한 패션회사였답니다。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LBP 03381이라는 텔렉스를 동경으로 친적이 없다는거예요。그 번호의 텔렉스는 여직원 마리·베르니에라는 아가씨가 13시44분에 시카고로 넣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었읍니다』

『알수 없는 일이로군。도대체 오더 넘버나 부품넘버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넘버는 없었어。어쨌든 잘 다녀오게。그리고、』

『네、지사장님』

『회장님께 동경지사 현황을 잘 말씀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네、잘 알고 있읍니다。지사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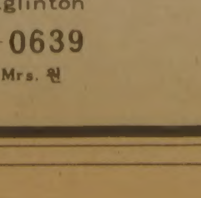
전화는 끊어졌다。준호는 다시 눈살을 찌푸리고있었다。스미에가 실종되었다。그냥 우연의 일치인가、아니면 사건인가。이틀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 속에 휘말렸던 준호는 스미에의 실종까지도 예사롭게 생각되지 않고 있었다。

아마우찌 스미에는 크리스마스 날 밤에 서울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축

토론토한국일보 일간발행 2주년기념

변호사 강찬영 961-2417	금성사 장동섭 749-3427	서울여행사 최동주 535-6004	의사 왕운린 968-1543	**토론토한국총영사관** 총영사 이상훈 외 직원일동 598-4608
거북이선물센타 김영철 535-2143	보링협회회장 정용필 742-2193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장 권병구 449-1871	의사 이은숙 781-0033	제일여행사 유지원·신용목 535-2377
Kimkor 종합보험 대리점 김종조 535-0028, 535-7200	모나미트로피 이기훈 298-3584	STEREO KING 김봉훈 766-4770	의사 최등영 964-0471	제인파꽃집 여정웅 769-0609
Kimbo Electric 김부원 245-5544	불루아안경점 구진모 531-2236	손명수태권·합기도장 사범 손명수 763-1155	연합상사 김현모 251-6578	칠성인쇄소 이인용 789-7351
킴스미용실 김월선 532-7094	CITYLIFE SINGS CO. 홍진표 751-9236	아세아한약방 조지섭 530-0522	인벤토리 호세환 536-6250	한인치과의사 일동 원영수 923-3336 이영일 233-9301 임동순 231-9163 이 억 224-0483 최해경 483-9515 윤중태 925-2408
크리스탈꽃집 박동호 927-8730	세방관광여행사 유승민·유문원 928-3335	완인태권무도회 이현우 483-4002	요한보석선물쎈타 Mrs. JU'LIANA EO 532-8365	
Canada Permanent Turst Co. 황순일 481-3443	스피디인쇄소 곽호중 535-3520	완인태권무도회 이경태 759-2500	PALMER'S 김봉균 494-0512	한발식품 임수철 274-5401
다우스꽃집 이동환 751-5851	소피고미용실 270-4684 Mrs. 고	이대환부동산 이대환 535-1251	A.E.LEPAGE 부동산 우덕이 741-9170	황용현부동산 황용현 449-8644~6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ishings) 홍애연 486-0397	소니아미용실 Mrs. 허송자 759-8854	임페리알 LIFE 김홍량 961-3774	E & J 오토바디숍 이영두 766-3122	한인신용조합 이사장 한상훈 533-9387
마야미용실 김영주 588-1480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248-2957	LE SALON 박용숙 964-2715	영꽃집 (Yonge Flower Shop) 김순환 960-6265	현영일공인회계사무소 현영일 ☎444-9341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 약품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전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 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택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illegible]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열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더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길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을 알고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 처방조제, 체질별 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건재한약.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신경성 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 및 예방, 허약체질.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성실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 Full Time Helper 구함.
자세한 문의는, 493-2228
491-6773

Store Cashier 구함.
(Full Time 혹은 Part Time)(Eglinton & Dufferin 지역)
전화 : 783-0683

스토아에서 일할 여자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 368-8834(커피숍에서 일해본분 우대)

Operator required, To operate a Gross A, Machine.
Some English Required.
Please call Mary Anne, 593-0320.

남자헬퍼 구함.
풀타임.혹은 파트타임
366 Bloor St. W. Mrs. 박.

양장과 양복 재봉기술자 구합니다.
보수 주 250불 이상.
전화 : 366-0459. Mr. 강.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방학동안(6~8월말까지) Store Manager로 성심껏 일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Store에서 다년간 Manager로 일한 경험있음.
Mr. 박 530-1838(오후5시이후 전화요망)

Student Wanted
(Gain Gas Bar Attendent)
Add : 877 Dundas St. W.

착실한 남자 가게헬퍼 구함.
Part Time, Toronto East지역.
전화 : 466-3995

Mac's Milk Store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Cashier 구함.(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아기 돌봐 주실분 구함. 몬트리올지역.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동안). 숙식·교통편의제공·우대함
전화 : 921-7105(Mrs. 리 오후4시이후)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밑반찬 만드실 경험있는 분 구함.
직접 내방 바람.
주소 : 5568 Yonge St. 동아식품.

▲씨알 한국인학교에서 여름에 일할 대학생 운전수를 구함. 주급 $200.
▲교사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동안만 Internship으로 일할 대학생 구함.
8주 주급 $175. 이력서를 150 Madison Ave. Tor. M5R 2S5로 보내주시기 바람.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Professional Violinist with Ba. Music. A.R.C.T.
전화 : 233-4200. Mr. Wong

매 매

350 Bed Institution
Owner Must Sell. $399,000

Located 2 Hours West of Metro on 6 1/2 Acres with Main Building & Two 160 Bed Dormers, Complete Full Kitchen, Dining Rm., Seats 200, Full Recreational Facilities, 2 Special Care Ward, Parking for 300 Cars.

Swimming Pool, All Alarm Systems + Many More Extras, All for $399,000, Perfect for Camp, Rest Home or Any Institutional Use.

CALL MR. MADSEN For Full Details.
Re-Max, Richmond Hill Realty Inc.
Realtor, Tel : (416)883-4922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그로서리스토아와 2 Bedroom 딸린 건물 급매.
Asking 12만불.
433 Pape Ave. Tor..

Yonge St.에 있는 Snack-bar(커피, 샌드위치)
오전7시 open, 오후4시 close, 주5일 영업.
적은 자금으로 운영가능. 전화 : 245-4614(오후7시이후)

Mall 안에 있는 Gift Store 급매.
연매상 12만7천불. 리스 1990년까지.
Asking:2만불 + Stock. 전화 : 282-6282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u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드라이크리너(Depot) 픽업스토어.
또는 Shoe Repair 팝니다.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4327.

위치좋고 Parking 장소 넓은
Driving Hamberger Place 팝니다.
주매상 $6,000. 렌트 $2,300.
리스 1990 + 5년옵숀. Asking $16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Mrs. 우.

셋업한지 3개월 된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전망 좋음. 현재 주매상 $3,000 개런티.
렌트 $500(5년) + $590(5년).
지하실 포함. 아스킹 : $2만 + 스탁(All Cash원함)
1221 Danforth Ave.

76년 Bonair Hard Top Trailer (6명용 장비포함) 급매코자 함.
전화 : 298-0354. Mr. Ye(오후5시이후, 주중연락)

햄버거 레스토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가게와 살림집 딸린 건물 급매.
○살림집 : 3 Bedrooms, 거실, 부엌, 변소(4 pc)
○가 게 : 년매상 25만불이상, 우체국도 겸함.
Asking 12만불. Howard Moore
(705)325-4448, (705)325-4290
Moore & Lougheed Ltd.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New Plaza(Yonge & North HWY 7)에 위치하고 있는 콘비니언스 스토아 급매. Asking $3만4천 + Stock.
전화 : 492-9031. Mr. Tam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 $5,000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베드룸. 전화 : 781-7080

---

(1) 레스토랑 팔거나 또는 렌트함.
(2) 스토아 렌트. 좋은 사업전망.
St. Clair & Keele 전화:532-8227. Georg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6,000.
리스(5년 + 5년). Asking : $61,000.
전화 : 1-528-3986. 해밀톤 Mr. 리.

자동차 팝니다. Sale Price $5,000.
닷산 200 SX 80년도형.
전화 : 536-8666

House for sale. Thornhill Area. 1,800 Sq. Ft.
4 Bedrms. Fire Place. Central Air Condition.
Many Extra. Tel : 889-5320

3년된 하우스 팝니다.
타주 이주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팝니다.
가격 : $97,000. 전화 : 499-3764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실 내 장 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2 Bed Room 살림집 렌트.
다운타운 지역. 7월1일 입주. 월 $450.00
▲방 세놓습니다. Dry하고 깨끗함. (다운타운)
월세 $200.00 533-2363(저녁시간)

부엌달린 방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 이민 온 부부임. Room 하나, 혹은 지하실 방도 무방함.(6월1일 입주희망)
전화 : 360-1790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Rose Garden(장미원) 일요일도 영업함(am 10-pm 5)
◉각종 플랜트. 어렌지먼트 ◉Party Time Supplies
◉웨이딩 & Special Day Cake 주문배달. 757-1010 Mr.김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하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

초여름 대매출

신록이 싱그러운 소망의 계절입니다.

교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하면서 저희식품점들이 아래와 같이 대매출을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와 조언을 빕니다.

품 명	대매출가격	종전가격
□국보쌀(50Lb)	$19.95	24.95
□선학쌀(50Lb)	13.95	
□사뽀로라면(24봉)	7.95	10.95
□가도야 참기름(캔)	7.95	10.95
□일본산 노랑태 햇조기(비늘벗긴것임)(22Lb)	34.95	39.95
□물오징어 특대형 (13Lb Box)	11.75	17.95
□알배기동태(50Lb Box)	45.95	
□갈비(무제한 SALE)	1.49 Lb	1.79
□햇배추(싱싱함)	49¢ Lb	69¢
□햇무우(싱싱함)	49¢ Lb	69¢
□한국 미나리(1단)	99¢ Lb	1.29
□SUN KIST 오랜지(88개)	9.95	12.95
RED DEL. 사과(100개)	19.50	12.95

〈판 매 처〉 동아식품 · 5568 YONGE ST. (222－8989)

서울동부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한밭식품(미시사가) (274－5401) · 466 SOUTH SERVICE RD

선학표 쌀 *최저가격으로 봉사합니다.

총수입원 금성무역 CO., LTD.